

李氏朝鮮 官撰 地理書로 보는 韓國 歷史地理認識의 起源
 -『新增東國輿地勝覽』을 중심으로-
 Origin of the Korean territorial conscience showed by
 official geography book in the Joseon dynasty
 -Focus on Shinjeungdonggukyeojiseungram-

金桓

(주)문화랑 R&D센터 향토사연구팀

- <목차>
 I. 用語의 定意 - 現代 韓國의 歷史地理認識과 ‘식민사관’
 II. 『新增東國輿地勝覽』의 性格
 1. 『新增東國輿地勝覽』 解題
 2. 既存 研究 檢討
 3. 『新增東國輿地勝覽』의 時代的 背景과 그 性格
 1) 酷刑 濫發의 恐怖政治
 2) 性理敎 - 排他的 唯一 統治理念
 3) 南怡의 獄事 - 宗教國家 體制의 固化
 4) ‘收書令’ - 反體制的 記錄文化遺産의 濫滅
 III. 『新增東國輿地勝覽』의 歷史地理認識 檢討
 1. 李氏朝鮮 當代 疆域의 認識 - 慶源部 認識의 昏迷
 2. 王氏高麗 疆域의 認識 - 東北界 認識의 昏迷
 3. 三國·漢郡縣 疆域의 認識 - 小中華觀의 發現
 IV. 現代 韓國 歷史地理認識의 起源과 性格

【연구요약】

현대 한국 역사지리인식의 기원을 규명하기 위하여, 『신증동국여지승람』을 중심으로 이씨조선의 관한 지리서를 분석하였다. 그것은 이씨조선의 성리교 종교국가 체제가 완성되던 시기에 편찬되었고, 그 내용엔 시대적 배경에서 비롯된 정치적 목적이 반영되었다. 동북방 경계에 대한 인식은 흥미해졌고, ‘기자조선’ 중심의 정통성론에서 소중화사관이 발현하였다. 그것은 이씨조선 후기와 일제시기를 거쳐 현대 한국까지 이어지면서, 한국에서 흔히 ‘식민사관’이라 불리는 역사지리인식의 기원이 되었다.

【주제어】

식민사관, 소중화, 성리교, 역사지리인식, 동국여지승람

- 1 -

I. 用語의 定意 - 現代 韓國의 歷史地理認識과 ‘식민사관’

오늘날 한국에서는 현행(現行) 주류(主流) 한국사의 ‘통설(通說)’적인 역사지리인식 이, 국내외의 거의 모든 공식적 역사 관련 매체와 관련된 대다수의 표현물들을 거의 일률적(一律的)·확일적(劃一的)으로 지배하고 있다.

여기서 ‘통설적 역사지리인식’이란, 한국사 교과서 및 각종 수험서 등 표준적·공식적·제도적 표현물에 나타난 역사지리인식을 말한다. 그리고 그러한 역사지리인식의 요점은, 대략적으로 다음과 같이 요약하여 열거할 수 있다.

- * 기원전 2세기 위만조선(衛滿朝鮮) 및 한(漢)나라 낙랑군(樂浪郡)의 중심지 위치를 대동강 유역으로 고정한다.
- * 위의 인식에 기반하여, 소위(所謂) ‘한사군(漢四郡)’을 비롯한 한나라의 동북부 군현(郡縣)들, 그리고 동시대 만주 및 한반도에 존재했던 고대(古代) 국가들의 강역(疆域)을, 대동강 유역에 고정한 낙랑군을 기준(基準)으로 삼아 비정(比定)한다.
- * 위의 인식에 기반하여, 고대의 요수(遼水)를 일괄적으로 현대의 요하(遼河)에 비정하며, 그것을 역사지리 비정의 주요 이정표로 삼는다.
- * 위의 인식에 기반하여, 서기(西紀, 이하 생략) 5세기 고려(高麗) 장수왕(長壽王)이 천도한 평양(平壤)의 위치를 현 북한 평양으로 비정한다.
- * 위의 인식에 기반하여, 7세기 당(唐)나라 안동도호부(安東都護府)의 최초 위치를 현 북한 평양으로 비정하며, 나당전쟁(羅唐戰爭) 직후 신라(新羅)의 강역을 현대의 대동강-원산만 이남으로 한정한다.
- * 위의 인식에 기반하여, 10세기 왕씨고려(王氏高麗)의 후삼국 통일 직후 시기(時期) 강역을 현대의 청천강-원산만 이남으로 한정한다.
- * 위의 인식에 기반하여, 12세기 ‘윤관(尹瓘)의 여진(女眞) 원정’의 결과로 획득했던 ‘동북 9성’의 위치를 현대의 함흥평야 내지 길주(吉州) 이남 지역으로 한정한다.
- * 위의 인식에 기반하여, 14-15세기 여말선초(麗末鮮初) 북방 국경 분쟁과 관련된 경원도호부(慶源都護府) 등지(等地)의 위치를 현대의 압록강-두만강 이남에 비정한다.

본고에서는 논의의 편의를 위해, 대략 상기(上記)한 특성을 가진 현행 주류 한국사의 역사지리인식을 ‘통설적 역사지리인식’이라 규정하며, 이하 ‘통설’이라고 약칭하기로 한다.

이 ‘통설’은 속칭 ‘반도사관’이라 지칭(指稱)되기도 한다. 그리고 ‘통설’의 기원(起源)에 대하여, 여러 논자(論者)들이 일제시기 조선총독부 산하의 조선사편수회와 그것을 주도한 일본인 역사가들을 주목해왔다. 그러한 견해들은 대체로, 츠다 소오키치(津田左右吉)나 이마니시 류(今西龍) 등 20세기 초 일본제국(이하 ‘일제’로 약칭)의 대표적인 역사가들과, 그들 견해의 영향 하에 편찬된 조선총독부의 『조선사(朝鮮史)』를,

- 2 -

현대 한국의 '통설' 형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원흉'으로 지목하는 경향(傾向)이 있었다.

일제시기 조선총독부 『조선사』에 나타난 역사지리인식에서 '통설'로 이어지는 연속성(連續性)과 계승성(繼承性)은, 이미 명료하게 드러나 있는 사실관계와 더불어, 여러 연구자들의 노력을 통해 비교적 상세하게 규명되었고, 근년에 이르러서는 그러한 인식이 대중적으로도 폭넓게 공유되어 있다고 보인다. 그러한 인식 공유에서 형성된 '공감대'를 바탕으로, '통설'과 조선총독부 『조선사』의 역사관을 일괄하여 '식민사관'이라 규정하기도 한다. 한편으로는 역사지리인식 문제에서 '식민사관'을 운운하는 것 자체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도 있으나, 모든 역사인식은 사관 즉 목적의 영향 하에 형성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역사지리인식 문제와 '식민사관'이 원천적으로 무관하다는 주장은, 논리적으로 성립할 수 없다.

예초에 '식민사관'이라는 범주적(範疇的) 개념을 어떻게 정의(定意)하느냐 부터가, 모든 논자들 간의 합의를 이루기는 어려운 문제다.¹⁾ 하지만 그것을 모호하고 추상적인 '내면의 성향'이 아닌, 구체적 현상(現象)으로 드러나는 특성을 기준으로 정의할 수는 있다. 특히 비교적 근년(近年)의 연구에서는 주류 한국사 역사관이 가진 인식론적 특성의 계보를 분석하여, 식민사관(植民史觀)의 정의와 현행 주류 한국사 역사관과의 관계를 이론적으로 구체화하였다.²⁾ 본고에서는 이 선행(先行) 연구의 이론적 성과를 기반으로, 현행 주류 한국사 역사관이 걸으려는 실증주의(實證主義)를 내세우지만 실질은 그 반대인 보편주의(普遍主義)와 법치주의(法則主義)에³⁾ 경도(傾倒)되어 있다는 특성에 주목한다.⁴⁾ 실증주의는 개별 사실의 탐구를 선행하는 귀납적 사고방식이

- 1) 잘 알려져 있듯이, 식민사관(植民史觀)에 대한 기존의 '교과서적' 정의는 '정제성(停滯性)·사대성(事大性)·당파성(黨派性)'이라는 세 가지 개념으로 대표되는, 이른바 '한(韓)민족의 부정적 특성에 대한 이야기'다. 대체로 1980년대를 전후하여 성립된 것으로 여겨지는 이 담론은 '정설'을 넘어 '유일진리(唯一眞理)'의 위상을 차지하였고, '오직 이것만이 식민사관이다.'라는 식으로 주장하는 논자(論者)들도 보인다. 그러나 이는 식민사관의 본질을 완전히 전도(顛倒)하고 오도(糊塗)하는 기만적 담론이다. 민족의 역사상에 나타난 부정적 특성을 논하는 것이 '식민사관'이라면, 민족사에 나타난 부정적 특성을 신랄하게 포진으며 민족적 각성을 촉구했던 신채호야말로 '식민사학자'가 된다. 이는 아해(阿害)당사자에 의해 직조(織造)된 지독위마(指鹿爲馬)의 꾀변이다. 그것이 '진문가'라는 맹목적 권위와 학적 허세로 분장되어, 벌써 수십 년째 버제이 한국 '역사학계'의 주류 담론으로 유통되었던 것이다.
- 2) ".....민족역사의 개별성(특수성)을 통해서만이 세계사적 보편성을 이해할 수 있다는 말은 곧 랑케 실증주의 사학의 핵심이다. 이와 반대로 실증주의적인 보편적 역사관은 '일제식 실증주의 사학'의 중심을 중심을 차지한다.그러하여 세계사적 보편성에서 민족사의 개별성을 추구한 한국 실증주의 사학자들의 역사관은 궁극적으로 랑케 실증주의 사학과 정반대의 길을 선택한 결과를 낳았다.민족의 개별성보다 보편성을 더 우위에 둔 것은 세계사적 보편성을 추구한 식민주의 사학의 방향과 같다." - 임종권, 『한국 실증주의 사학의 계보 -식민사관과 상관성-, 『역사와융합』, 제 2집(2018), 58-59쪽.
- 3) "랑케에 따르면 형식적인 것(das Formelle)과 현실적인 것(das Reale)이 있는데 형식적인 것은 보편적인 것(das Allgemeine)이고, 현실적인 것은 특수한 것(das Besondere)으로써 행동하는 것이고, 이들은 각각 구분된다." - 임종권, 『한국 실증주의 사학과 식민사관』 한가람역사문화연구소, 2020, 380쪽.
- 4) ".....랑케가 중시한 것은 '사실(事實)'인 반면 한국의 실증주의 사학은 '실증(實證)'을 더 강조하고 있다. 말하자면 랑케 실증주의 사학은 역사적 사실을 밝히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는 반면, 한국 실증주의 사학은 방법론에 그 목표를 두고 있다.어떤 역사적 사건에 대한 사실성을 탐구하기보다 스스로 설정한 가설 혹은 역사사건 그 자체를 입증시키는 것에 더 몰두한다는 것이다." - 임종권(2018), 63-64쪽.

다. 반면 보편주의와 법치주의는 소위 '보편적 진리'를 전제(前提)하고, 개별 사실들을 취사선택 내지는 변형시켜 그 프레임(Frame) 안에 집어넣는, 연역적 사고방식이다. 요컨대 한국의 세칭(世稱) '실증사학'은 실제로는 정반대 인식체계인 보편·법치사학이며, 기만적(欺瞞的) 염명(染名)으로 만들어진 가짜 실증사학이라는 말이다.

보편주의와 법치주의는 과거 서구에서 제국(帝國)의 팽창정책을 학술적으로 정당화하는 도구로 사용했던 논리이고, 지금도 '세계화(Globalization)' 담론의 이론적 근거로 활용된다. 오늘날 서구(西歐) 인문학의 사상적 경향이나 '유행'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이른바 '모양주의(慕洋主義)'⁵⁾가 만연(蔓延)한 가운데, 그것을 소위 '글로벌 스탠다드(Global Standard)' 즉 보편적 유일진리(唯一眞理)로 전제하는 논자들도 보인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실 인식을 기반으로, 오늘날 한국에서의 '식민사관'이란 무엇인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잠정적으로 임의 정의한다.

오늘날 한국에서의 식민사관(植民史觀)이란, 근대 서구와 일본의 식민주의(植民主義)·제국주의(帝國主義)를 배경으로 하는 보편주의·법치주의 역사관에서 결정적 영향을 받았으며, 한국과 영토적·정치적·경제적으로 대치(對峙) 또는 인접(隣接)한 타국(他國)의 이익이나 패권 내지는 영토 확장, 또는 한국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개인이나 집단의 배타적·적대적 이익 추구 등, 국제관계상 한국을 적대(敵對) 또는 가해(加害)하거나 한국의 주권(主權) 침해에 활용될 가능성이 있는, 이적(利敵)의 역사관이다.

이는 뒤집어 말하면, 어떤 역사관을 가리켜 '식민사관'이라고 규정하려면, 근대 서구나 일본의 보편주의·법치주의 역사관이라는 기원과, 국제관계상 이적행위에 활용이라는 작용, 두 가지 측면에 부합(符合)됨을 밝혀야 한다는 뜻이다. 기원의 측면에서 서구나 일본의 영향이 있었다라도, 작용의 측면에서 국제관계상 이적행위로의 연결 가능성이 없다면 그것은 '식민사관'이라 부르기 어렵다. 반대로 작용의 측면에서 국제관계상 이적행위로의 연결 가능성이 농후(濃厚)하더라도, 기원의 측면에서 서구나 일본의 영향을 확인할 수 없다면 그 역시 '식민사관'에는 해당되지 않으며, 그 특성을 드러내기엔 적합한 다른 용어로 지칭해야 한다.

그러므로, 앞서 규정한 '통설'을 '식민사관'이라 지칭하는 논의가 타당성을 가지려면, 먼저 '통설'의 기원이 근대 서구와 일본의 영향에 있었음이 논증되어야 한다. 조선총독부 『조선사』 등을 통해 일제시기 조선총독부의 역사지리인식과 '통설' 사이의 연속성·계승성이 충분히 드러났다고 하더라도, 일제시기 조선총독부의 역사지리인식과 그 이전 이씨조선(李氏朝鮮, 이하 李鮮⁶⁾으로 약칭)⁷⁾ 시대 역사지리인식의 관계 문제

5) '모양주의(慕洋主義)를 변형한 조어(造語)다.

6) 앞 글자를 따서 '이조(李朝)'라 약칭하는 것이 관행이었던 모양이지만, 전근대 역사서에서 두 글자 국명을 한 글자로 약칭할 때에는 뒤 글자를 취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어서, '高麗'는 '麗', '百濟'는 '濟', '新羅'는 '羅', '伽倻'는 '伽'로 약칭하였다. 근대 이후의 논자들도 대체로 원전(原典) 존중의 차원에서 이를 답습하였던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므로 일관성을 위해 '朝鮮' 또한 마찬가지로 뒤 글자를 따서, '이선(李鮮)'이라 약칭하는 편이 합리적일 것이다.

7) 한국에서는 '이씨조선'이 일제시기 '식민사관'에 의해 만들어진 용어이므로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는,

가 남는다. 만약 '통설'의 특성이 이선(李鮮)시기 역사지리인식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면, '통설'을 식민사관으로 규정할 수 있는 논리적 근거는 사라진다. 이선시기 역사인식의 시비(是非)에 대한 평가와는 상관없이, 그것이 식민사관일 수는 없다. 그것은 근대 서구와 일제의 영향을 받기 전에 형성된 전통시대의 역사인식이기 때문이다. 인식의 형해화(形骸化)를 초래하는 습관적·편의적인 용어 남용은, 이제는 지양(止揚)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본고에서는, 이선시기의 공식적·주류적 역사지리인식을 가장 대표적으로 규정한다고 할 수 있는, 이선 중기(中期)의 관찬(官撰) 지리서(地理書)인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이하 '승람'으로 약칭)』을 중심으로 이선시기 역사지리인식을 검토하여, 이선시기 공식적·주류적 역사지리인식과 현대 '통설'간 관계의 실체에 접근하고자 한다. 본고의 목적은 사학사(史學史) 차원에서 '통설'의 기원과 성격 규명이 다. 특정 역사지리인식의 구체적 시비 검토는 본고의 주제가 아님을 밝혀둔다.

II. 『新增東國輿地勝覽』의 性格

1. 『新增東國輿地勝覽』解題

『승람』은 서기(西紀, 이하 생략) 1530년(이선 중종 25년)에 편찬된, 이선시기의 대표적 관찬 지리서다.

이선 정부는 1432년(세종 14)에 『팔도지리지(八道地理志)』라는 지리서를 신찬(新撰)하였다.⁸⁾ 그리고 1454년(단종 2)에 편찬한 전대(前代) 왕의 실록(實錄)인 『세종장헌대왕실록(世宗莊憲大王實錄)』의 방대한 부록 중 하나로 「지리지(地理志)」를 수록한 바 있다.⁹⁾ '세종실록 지리지'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는 이 문헌은, 당시의 강역 내 지리정보를 통합적으로 다룬, 현존(現存) 최고(最古)의 동시대 국가지리정보 기록물이다.

그리고 1481년(성종 12)에 다시 새로운 지리서인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을 편찬하였다.¹⁰⁾ 『동국여지승람』은 이후 1485년(성종 16), 1499년(연산군 5), 1528년(중종 23)의 세 차례에 걸쳐 수정되었다고 하며,¹¹⁾ 1530년에 이르러 완성되면서 표제

일종의 글씨 비슷한 정서가 널리 공유되고 있다. 그러나 그 실상은 역사상(歷史上) 중복이 혼란 전근대의 국명에 그 왕실의 성씨를 붙여 지칭함으로써 국호가 같은 다른 국가와 구별하는, 오래된 전통적 관행일 뿐이다. 이 전통적 관습적 명명(命名)이 왜 혹자들에게 의해 '식민사관'의 산물로 간주되었는지는 알 도리가 없다. 이성계(李成桂)가 세운 조선의 국호는 고대의 조선에서 따온 것이므로, 이성계가 세운 그 개국에 대해서는 오랜 관습에 따라 왕실의 성씨를 붙여 고대의 조선과 구별하는 호칭을 쓰는 편이 합리적하다. 이는 왕건(王建)이 세운 고려 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8) 세종실록 55권, 세종 14년 1월 19일 기묘.

領春秋館事孟思誠、監館事權軫、同知館事尹淮、申繼等進撰八道地理志…….

9) 단종실록 10권, 단종 2년 3월 30일 신사.

春秋館撰進世宗大王實錄一百六十三帙…….

10) 『新增東國輿地勝覽』卷首 「進東國輿地勝覽箋」.

……成化十七年四月十九日……臣盧思愼等謹上箋.

명(明)나라 성화(成化) 17년은 이선 성종 12년이다.

11)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https://encykorea.aks.ac.kr/> '신증동국여지승람' 항목에 의거하였다.

(標題)에 '신증(新增)'이라는 접두어가 붙었다.¹²⁾ '신증'이 붙기 전의 『동국여지승람』 원본이나 그 전작(前作)인 『팔도지리지』 등의 문헌은 현존하지 않는다. 『승람』의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판본은 일본이 보유하고 있으며, 국내에 유일하게 현존하는 『승람』의 판본은, 1611년(광해군 3)에 인쇄한 목판본이라고 한다.¹³⁾ 그러므로 이하 『승람』으로 지칭하는 대상은, 국내 현존하는 1611년판 『신증동국여지승람』임을 밝혀둔다.

그렇다면 국내 현존하는 『승람』이란, 대체로 15세기 말 성종 시기에 성립된 역사지리인식을 기반으로 16세기 초 중종 시기에 완성되었고, 17세기 초 광해군 시기에 인쇄된 기록물이라고 할 수 있다. 국내 현존하는 문헌 중에서 『세종실록』 「지리지」가 이선 초기의 공식적 역사지리인식을 표현했다면, 『승람』은 이선 중기의 공식적 역사지리인식을 표현했다고 할 수 있다. 혹자의 평가처럼, "이 지리서에서 확정된 역사지리인식은 당대 국가차원의 공식적인 견해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¹⁴⁾ 그러므로 『승람』은, 한백겸(韓百謙)의 『동국지리지(東國地理誌)』, 정약용(丁若鏞)의 『야방강역고(我邦疆域考)』, 김정호(金正浩)의 『대동지지(大東地志)』 등 이선 후기 역사지리서들 이상, 중대한 위상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2. 既存 研究 檢討

『승람』의 성격과 내용에 대한 해설이나 의의(意義)에 대한 설명은 기존에도 이루어진 바 있다. 그러므로 먼저 『승람』을 중심 주제로 다루었던 기존 주요 논의들의 논지(論旨)를 요약 소개하고, 그 문제점을 간략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2001년 박인호의 논문 「조선전기 지리서에 나타난 역사지리인식과 특성」에서는, 이선 전기(前期)에 편찬되어 현재까지 전하는 세 가지 관찬 지리서인 『세종실록』 「지리지」, 『고려사(高麗史)』 「지리지」, 『승람』에 나타난 역사지리인식과 그 특성에 대하여 해설하였다.

박인호는 이 글에서 "조선후기 역사지리연구에서 가장 역사지리비정의 근간이 된 지리서가 바로 『동국여지승람』이다."¹⁵⁾라고 설명하였다. 이는 박인호가 『승람』에 대하여, 이선 중기 뿐 아니라 후기의 역사지리인식에서도 여전히 중추적인 위치를 차지했던, 이선시기 전체를 통틀어 그 위상이 가장 중대(重大)하고 결정적인 관찬 지리서라고 평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글의 서두(序頭)에서는 관찬 지리서에 수록된 "각 지역의 역사적 변천에 대한 당대의 인식"이 "당대의 시대적 사조와 무관할 수 없다"는 요점을 지적하였다.¹⁶⁾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윤관 등복 9성' 위치 비정 문제의 핵심적 논점인 '공험진'의 위

12) 『新增東國輿地勝覽』卷首 「進新增東國輿地勝覽箋」.

……嘉靖九年八月日……臣李符等謹上箋.

명나라 가정(嘉靖) 9년은 이선 중종 25년이다.

13)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https://encykorea.aks.ac.kr/> '신증동국여지승람' 항목에 의거하였다.

14) 박인호, 「조선전기 지리서에 나타난 역사지리인식과 특성」, 『조선사연구』, 第 10輯(2001), 214쪽.

15) 박인호(2001), 226쪽.

16) 박인호(2001), 214쪽.

치 문제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세종대에 편찬된 『지리지』에서는 그 위치를 대체로 두만강 이북으로 이해”¹⁷⁾하였으나, “『고려사(高麗史)』 『지리지』가 편찬되었을 때에는 9성의 위치에 대해 두만강 이북으로 확신할 수 없었으며, 이에 따라 상당히 고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¹⁸⁾라고 설명한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인식 변화의 원인에 대하여 “세종 초기의 영토확장 정책에서 벗어나 정치적 안정에 역점을 두었던 세종대 말엽의 시대적 사조와 관련이 있을 것이다.”¹⁹⁾라고 덧붙였다. 그리고 이후 『승람』에서 “『세종실록』, 『지리지』의 내용이 다시 수록되면서 두만강 이북설이 조선전기에 국가적 인 공인을 얻고 있다.”²⁰⁾는 사실의 언급을 더하였다. 또한 『세종실록』 『지리지』에 대하여 “역사지리인식에서는 상고기의 강역을 한반도내로 국한시키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지적하면서, 『승람』이 “이들 『지리지』의 내용을 계승하면서 한반도 중심의 상고사 역사지리인식을 더욱 강화하였다.”²¹⁾라고 총평하였다.

박인호의 글은 “당대의 시대적 사조와 무관할 수 없”는 역사지리 기록물의 본질에 대한 기본적인 통찰을 전제한 위에서, 『승람』의 전반적 특성과 요점을 간략하게 총괄하여 제시하였다. 연관 주제에 대한 박인호의 다른 논문²²⁾도 대체로 비슷한 논리구조로 이루어졌다.

2005년 趙誠乙의 논문 「朝鮮初期 古朝鮮:三韓의 首都와 疆域 認識 - 新增東國輿地勝覽을 中心으로 -」에서는, 『승람』에 기재(記載)된 고대국가 중심지 위치와 강역 등 역사지리인식의 주요 사항들을 나열하고, 그 의미를 평가하였다.

趙誠乙은 글의 서두에서 “前近代 우리 역사서 가운데 가장 체계적이라고 할 수 있는 東史綱目”, “우리나라 비판적 歷史地理學 연구의 선구인 17세기 韓百謙의 東國地理志”, “역사지리학 연구는 정약용의 我邦疆域考에 이르러 최고 수준에 도달” 등의 언급을 하면서, “조선 후기 역사지리학을 통해 우리는 古朝鮮, 三韓, 三國 등 우리 고대국가의 지리적 위치에 대하여 비교적 정확한 인식에 도달하게 되었다.”²³⁾라고 주장하였다. 이는 趙誠乙이 ‘조선 후기 역사지리학’의 역사지리인식과 현대 ‘통설’ 사이의 연속성·계승성을 인식하였음을 드러낸 것이다.

또한 이 글에서는 『승람』 「황해도(黃海道)」 조(條)의 서두 부분 기록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하나의 작위적(作爲的) 역사지리인식을 입론(立論)하였다. “黃海道. 本朝鮮馬韓舊地. 後爲高句麗所有.”²⁴⁾ 라는 구절의 앞부분을 ‘황해도는 본래 조선과 마한의 옛 땅’ 이라고 해석하고, 그 의미를 ‘황해도 일부 지역은 고조선 영역, 일부 지역은 마한의 영역으로 생각한 것으로 판단’하여, “고조선(단군·기자)과 마한의 관계를 先後 관계가 아니라 同時代라는 관점에서 서술한 것”²⁵⁾ 이라고 단정(斷定)한 것이다.

17) 박인호(2001). 223쪽.

18) 박인호(2001). 223-224쪽.

19) 박인호(2001). 224쪽.

20) 박인호(2001). 225쪽.

21) 박인호(2001). 231쪽.

22) 박인호, 「고려시기 사서에 나타난 역사지리인식의 추이와 특성」, 『세명논총』, 제9집(2001).

23) 趙誠乙, 「朝鮮初期 古朝鮮:三韓의 首都와 疆域 認識 - 新增東國輿地勝覽을 中心으로 -」, 『科技考古研究』, 11號(2005), 88쪽.

24) 『新增東國輿地勝覽』 卷之四十一 黃海道.

“本朝鮮馬韓舊地”를 선입관 없이 직역(直譯)하면, ‘본래 조선(朝鮮)·마한(馬韓)의 옛 땅이다’라는 단순하면서도 모호한 문장이 나온다. 여기서 ‘조선’과 ‘마한’이 선후(先後) 관계인지, 병렬(並列) 관계인지, 혹은 종속(宗屬) 관계인지는 『승람』의 내용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다. 애초에 그 문장의 기록자가 그 의미를 명확히 인식·결정하고 쓴 것인지의 여부조차도, 수백 년 후의 독자(讀者)로서는 알아낼 도리가 없다. 그리고 무엇보다, 『승람』의 다른 부분에서도 유사한 표현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문제다. 『승람』 경도(京都) 조(條)의 첫머리에서도 “古朝鮮馬韓之域”²⁶⁾이라는 구절이 등장한다. 직역하면 ‘옛 조선(古朝鮮)·마한의 영역(域)’이 된다. 趙誠乙의 주장에 따르면, 이 부분 또한 같은 원리로 ‘일부 지역은 고조선 영역, 일부 지역은 마한의 영역으로 생각한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오늘날의 서울 강북 지역이었음이 분명한 이선의 ‘경도’ 지역 역시, 황해도 지역과 마찬가지로 ‘일부 지역은 고조선 영역, 일부 지역은 마한의 영역’이었던 것이 된다. 趙誠乙은 글의 결론 부분에서 “승람에서 한양을 고조선과 마한의 접경 지역이라고 한 것”²⁷⁾이라는 언급을 추가하여, 본론에서의 주장을 재확인하였다. 황해도 지역에 ‘고조선과 마한의 경계’가 있었는데, 거기서 다시 남쪽으로 1백여km 가량 떨어져 있는 서울 강북 지역에도 “先後 관계가 아니라 同時代라는 관점에서” 마찬가지로 ‘고조선과 마한의 접경 지역’이 있었다는 것이다. 산맥이나 하천 등 자연 장벽을 따라 경계가 형성되기 마련인 전근대 역사상(歷史像)의 상식을 완전히 위배(違背)한다는 점은, 그나마 관용적 이해까지는 가능한 부분일 것이다.

趙誠乙이 이처럼 성급하고 무리하게 단정적인 주장을 했던 배경에는, 그가 인식한 ‘조선 후기 역사지리학’의 역사지리인식과 현대 한국의 ‘통설’ 사이의 연속성·계승성이 자리하고 있다. ‘고조선’의 중심지를 대동강유역에 비정하고, 또 그 남쪽의 남한 지역에는 ‘고조선’과 완전히 별개의 정치체가 존재했었다고 보는, 소위 ‘우리 역사의 이원적 역사 전개’²⁸⁾라는 인식을, ‘조선 후기 역사지리학’과 趙誠乙을 비롯한 현대 주류 한국사의 논자들이 거의 온전히 공유하고 있음을 드러낸 것이다.²⁹⁾ 趙誠乙이 ‘조선 후기 역사지리학’의 저작(著作)들에 대하여 “前近代 우리 역사서 가운데 가장 체계적”, “우리나라 비판적 歷史地理學 연구의 선구”, “최고 수준” 등의 극찬을 늘어놓은 이유는, 당연히 ‘조선 후기 역사지리학’의 역사지리인식이 趙誠乙의 역사지리인식과 대체로 일

25) 趙誠乙(2005), 89쪽.

26) 『新增東國輿地勝覽』 卷之一 京都 上.

27) 趙誠乙(2005), 100쪽.

28) 趙誠乙(2005), 100쪽.

29) 국내 각종 고문헌의 원문과 번역문의 방대한 자료를 온라인 서비스하는, 한국고전번역원의 웹사이트 한국고전종합DB - <https://db.itkc.or.kr/>에서는 『승람』의 원문과 번역문을 서비스하고 있다. 본고의 작성 과정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다. 그런데 이 사이트에서 재공하는, 상기 “古朝鮮馬韓之域” 부분에 대한 번역문에서는, 해당 문장을 “고조선(古朝鮮)은 마한(馬韓)의 지역이다.”라고 하였다. 이는 역사상의 문제는 덮어두더라도 자체 문맥에도 전혀 맞지 않는, 완전히 엉뚱한 번역이다. 문법적으로 난해하거나 오발자(誤脫字) 등의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닌 짧고 단순한 문장에서, 이처럼 상식을 무시하는 엉터리 번역이 등장해야만 했던 원인이 무엇일까? 아마도 현행 주류 한국사가 공인한 소위 ‘연구성과’가 사료 원문보다 선행(先行)하는, 한국의 부조리한 현실과 관계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본말전도(本末顛倒)의 부조리 현상이 계속된다면, 한국사의 ‘연구성과’는 역사의 진실로부터 계속해서 멀어질 수밖에 없다.

치하기 때문일 수밖에 없다.

趙誠乙은 글의 말미에서 “……고대 국가의 疆域과 首都의 위치 비정 등을 오늘날 더욱 진전시키기 위해서는 …… 고고학적 발굴 성과와 문헌사학을 결합시키는 일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 문헌에서 고대 국가의 수도 혹은 정치적 중심지라고 한 곳들에 대하여는 장기적 계획 아래 체계적이고 대대적인 발굴과 조사를 하여야 할 것이다. …….”³⁰⁾라는 일종의 ‘정책 제언’ 비슷한 이야기를 덧붙였다. 여기서 그 실현 가능성이 문제에 대해서는 덧붙일 수밖에 없으나, 이 언급의 일차적 본질은 스스로가 이른바 ‘고고학적 발굴 성과’를 증시하는 ‘실증적’ 입장임을 자처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글에 나타난 趙誠乙의 주장은 ‘실증’과는 거리가 멀다. 이는 앞서 언급한 이론적 연구에서 지적된 바 있는, “어떤 역사적 사건에 대한 사실성을 탐구하기 보다 스스로 설정한 가설 혹은 역사사건 그 자체를 입증시키는 것에 더 몰두”하는 “방법론에 그 목표를 두고 있다.”³¹⁾는 특성이 드러난 사례다.

2009년 徐仁源의 논문 『『東國輿地勝覽』에 반영된 自主意識 -訥齋 梁誠之의 思想과 관련하여-』에서는, 이선 초기의 관료 양성지(梁誠之)의 ‘자주적이고 민족주의적인’ 사상(思想)이 『승람』에 반영되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徐仁源은 『東國輿地勝覽』의 최초 편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인 양성지에 대하여, “世宗에서 成宗에 이르는 6대 왕을 거치면서 군주들로부터 두터운 신임을 받았는데, 그 이유는 그의 학문과 사상이 실용적이면서도 민족의 주체적인 자주 의식을 강조하였기 때문이다”³²⁾라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그것을 머리말 부분에서 일종의 전제처럼 제시하기도 하였다.³³⁾ 이것은 입증 가능성이 의심스러운 이야기다. 양성지가 ‘실용적이면서도 자주 의식을 강조’했던 것이 그가 신임을 얻었던 이유인지, 아니면 오히려 그의 영향력을 제한하는 약점으로 작용하였는지는 확인할 방법이 없다. 그 누구라도 역사 속 과거 인물들의 속마음을 조사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徐仁源의 이러한 경향은 이 글의 다른 여러 곳에서 드러났다. “백성들에게 지지를 얻은 조선 왕조는 안정된 정치 상황과 생산력의 비약적인 발전에 따라 부국강병의 목표도 일정 부분 달성되면서 국가적 自矜心이 고양되었다.”³⁴⁾라거나, “조선 초기 조선 왕조는 민족적 자주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였다. 이와 상응하여 혁명파 사대부(勳舊派) 유학자들은 대부분 민족주의적 경향을 보여 주었다.”³⁵⁾와 같은, 납득 가능한 근거나 관련 논저(論著)의 제시가 없는 독단적 평가들이 그것이다. 이들 주장은 본문을 통한 근거 제시도 없이, 마치 일종의 ‘보편적 법칙’처럼 내세워졌다.

『승람』에 대해서도 비슷한 구조의 주장이 이어졌다. 徐仁源은 『승람』의 편찬에 “중국으로부터 유입된 『大明一統志』의 영향”이 있었음을 밝혔고, “『東國輿地勝覽』은 宋

30) 趙誠乙(2005), 100쪽.

31) 임종권(2018), 63-64쪽.

32) 徐仁源, 『『東國輿地勝覽』에 반영된 自主意識 -訥齋 梁誠之의 思想과 관련하여-』, 『역사민속학』, 제29호(2009), 50쪽.

33) 徐仁源(2009), 39쪽.

34) 徐仁源(2009), 40쪽.

35) 徐仁源(2009), 40쪽.

의 『方輿勝覽』과 명의 『大明一統志』의 체제를 바탕으로 편찬”된 것으로 “중국의 업적을 모방”한 것임을 인정하였다. 그러면서도 “중국의 문화를 바탕으로 우리의 전통 문화를 재정립하려는 입장이 강하였다.”라면서, “내용적인 면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의 지리를 바탕으로 자주적인 편찬을 하고 있었다.”라고 주장하였다.³⁶⁾ 자국(自國)의 지리서 내용은 당연히 자국의 지리에 대한 것일 수밖에 없는데, 굳이 ‘자주적’이니 ‘자부심’이니 하는 미사여구를 동원해 작위적인 의미를 부여한 것이다.

또한 徐仁源은 “『東國輿地勝覽』에는 국가의 현실 파악에 가장 중요시되는 戶口·田結·生産物·軍丁의 기록이 빠진 반면, 名賢·旌表門閭·陵墓·樓臺·題詠·僧寺 등의 편목과 내용이 크게 증가하였다.”라는 중요한 사실을 밝히면서, “현실적 문제보다는 유교적 문화 국가로 발전하기 위한 준비 단계로써 『東國輿地勝覽』을 편찬하였다.”라고 주장하였다.³⁷⁾ 이것은 앞서 ‘『승람』에 반영된 양성지의 실용적이고 자주적인 사상’을 운운했던 이야기에 대한 통렬(痛烈)한 자기반박(自己反駁)이다. 『東國輿地勝覽』의 특성을 규정한 것이 ‘양성지의 실용적이고 자주적인 사상’이라는 말인가, 아니면 “현실적 문제보다는 유교적 문화 국가로 발전하기 위한 준비 단계”라는 말인가? 이른바 ‘문화 국가’라는 미사여구와 ‘발전’이니 ‘단계’니 하는 법치주의적 관념의 포장(包裝)으로, “戶口·田結·生産物·軍丁의 기록이 빠진 반면, 名賢·旌表門閭·陵墓·樓臺·題詠·僧寺 등의 편목과 내용이 크게 증가”하였다는 사실이 가려지지는 않는다. 그것은 ‘현실적 문제’에 집중하는 ‘실용적이고 자주적인 사상’과는 정반대의 현상이다.

또한 徐仁源은 “『東國輿地勝覽』이 국가의 공식적인 지리지였고, 내용이 중국에 알려질 수도 있다는 한계로 인하여 당시 지배계층의 자주 의식을 그대로 반영할 수는 없다고 하여도 역사나 지리 측면의 민족주의적 입장은 강하게 반영될 수밖에 없었다.”³⁸⁾라는, 직관적 이해가 어려운 자가당착적 주장을 하였다. 그러면서, 15세기 지리서의 ‘八道’라는 자국 중심적 표현이 16세기 지리서에서는 ‘東國’이라는 타국 중심적 표현으로 바뀌었다는 현상에 나타난 의미에 대해서는 침묵하였다. 물론 徐仁源의 방식이라면, 이것조차 “중국의 문화를 바탕으로 우리의 전통 문화를 재정립하려는 입장”에 의한 ‘자주적’이고 ‘민족주의적’인 ‘자부심’의 표현으로 변신이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맺음말 부분에서, 이 자가당착적 이야기들의 구조적 실체가 공개되었다. “梁誠之가 주도했던 『東國輿地勝覽』 초고본은 梁誠之의 거들던 奏請에도 불구하고 刊印되지 못하였고, 5년 후에 金宗直 등이 주도했던 수찬본이 간인 되었다.”³⁹⁾라고 친절하게 밝힌 것이다. 양성지가 주도한 초고본이 간인(刊印)되지 못하였다면, 현존하는 1611년판 『승람』의 근간(根幹)은, 당연히 ‘김종직(金宗直) 등이 주도했던 수찬본’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徐仁源은 스스로 “金宗直이 주도한 『東國輿地勝覽』의 수찬으로 인해 초고본의 성격은 크게 변화하였으리라 생각될 수 있다.”⁴⁰⁾라고 언급함으로

36) 徐仁源(2009), 49쪽.

37) 徐仁源(2009), 50쪽.

38) 徐仁源(2009), 50쪽.

39) 徐仁源(2009), 63쪽.

40) 徐仁源(2009), 63쪽.

써, ‘양성지 초고본’과 현존 『승람』간의 온전한 연속성·계승성을 보증할 수 없음까지 고백하였다. 이처럼 하나의 글 안에서 뭇음말이 본문에 대한 자기반박의 성격을 갖는 기이한 구조가 흔하지는 않을 것이다.

徐仁源은 현존하는 1611년판 『승람』과는 직접적 연관도 없는 15세기 인물 양성지를 통해, 오늘날에는 그 내용을 확인할 수도 없는, ‘양성지가 주도했던 간인되지 못한 초고본’이라는 유령을 만들어냈다. 그리고 그 유령에 대하여 ‘실용적’이니 ‘자주적’이니 ‘민족주의적’이니 심지어는 “우리 국토의 광대함을 인식하고, 그것을 수복하려는 정신”⁴¹⁾이니 하는 작위적인 미사여구들이 적용되었다. 이 유령 이야기의 전거(典據)는, 양성지가 아닌 김충직이 주도하여 펴낸 판본을 근간으로 하는, 현존 1611년판 『승람』일 수밖에 없다. 양성지의 사상이 ‘자주적’·‘실용적’·‘민족주의적’이었으므로 그가 편찬을 주도한 ‘초고본’의 성격 또한 그러할 것이라는 추측이 전제된 위에서, 자기반박적 연설을 이어가며 이미지화한 ‘양성지 초고본의 추정 성격’을 현존 『승람』에 덮어씌워 일종의 프레임을 형성하는, 언어적 마술(魔術)을 시도한 것이다.

추정전대 그 목적은 현존 『승람』의 내용이 ‘자주적’·‘실용적’·‘민족주의적’이라는, 환상적(幻想的)·관념적(觀念的) 담론의 창조였을 것이다. 그래서 ‘자주적’·‘실용적’·‘민족주의적’인 인물 양성지가 편찬을 주도했던, ‘간인되지 못한 초고본’이라는 유령을, 그 ‘지적 사기(知的詐欺, Fashionable Nonsense)’의 도구로 이용했던 것이다.

3. 『新增東國輿地勝覽』의 時代的 背景과 그 性格

기존 연구의 검토 과정을 통해, 『승람』의 중요한 특성들이 드러났다. 본고의 주제와 관련하여 의미가 있는 특성들을 재정리하면, 대략 다음과 같다.

- * 『승람』의 역사지리인식은 16-17세기 이전 국가차원의 공식적인 견해다.
- * 『승람』은 이선시기 전체를 통틀어 그 위상이 가장 중대하고 결정적이었던 관한 지리서였으며, 이선 중기 뿐 아니라 후기의 역사지리인식에서도 여전히 중추적인 위치를 차지하였다.
- * 『승람』의 체제(體裁)는 송(宋)나라 『방여승람』과 명(明)나라 『대명일통지』를 모방한 것이다.
- * 『승람』의 내용에서는 호구(戶口)·전결(田結)·생산물(生産物)·군정(軍丁) 등 부국강병(富國強兵)에 필요한 실용적 경제·군사 정보와 지표들이 배제(排除)되었고, 반면 명현(名賢)·정표문려(旌表門閭)·능묘(陵墓)·누대(樓臺)·제영(題詠)·승사(僧寺) 등 성리교(性理敎)⁴²⁾ 이념이나 지배층의 고급문화 영위(營爲)와 관련된 사항들에는 많은 분량이 할당되었다.

41) 徐仁源(2009), 62쪽.

42)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명칭은 ‘성리학(性理學)’이다. 그러나 소위 ‘사문난적(斯文亂賊)’을 운운하며 의심과 비판과 토론과 변화를 원천 봉쇄하는 패쇄적 신명 체계는, 학문보다는 종교로 분류함이 적절하다.

- * 『승람』은 앞선 시대의 『세종실록』 「지리지」(이하 ‘지리지’로 약칭)와 마찬가지로, 고대의 역사적 강역을 당시 이선의 강역 이내로 국한시키려는 성향을 보였다. 그래서 『승람』을 통해 한반도 중심의 역사지리인식이 더욱 강화되었다.
- * 『승람』에 의해 굳어진 ‘한반도 중심’의 역사지리인식은 『동국지리지』, 『아방강역고』 등 이선 후기 역사지리서들에 나타난 역사지리인식의 근간이 되었다. 따라서 양자간에는 일정한 연속성·계승성이 성립한다.
- * 현대의 ‘통설’에서도, 『승람』으로부터 이어지는 일정한 연속성·계승성이 확인된다.
- * 『승람』에 나타난 역사지리인식은, 편찬 당시의 시대 상황과 무관할 수 없다.

송·명 지리지의 체제를 모방한 것이나, 실용적 정보와 지표는 배제하고 지배이념이나 지배층이 향유하는 고급문화와 관련된 서술에 중점을 둔 것은, 성리교 지배체제의 강화라는 정치적 목적의 차원에서 이해가 가능하다. 고대의 역사적 강역을 당시 이선의 강역 이내로 끌어들이는 이유 또한, ‘현실적으로 탈환(奪還)이 불가능한 역사적 실지(失地)라는 잠재적 불안 요소를 제거하고 왕조의 ‘위대성(偉大性)’을 선전함으로써, 국가의 통치체제를 안정시키고 지배층의 기득권을 고착화(固着化)하려는 목적과 관련이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특성은 『승람』의 성립 당시의 정치적 상황과 무관할 수 없다. 기존 연구에서는 이 점을 단편적으로 언급하기는 하였으나 특별히 주목하여 검토하지는 않았다. 그러므로 보다 진보(進歩)한 논의를 위해서는, 1차 사료를 통해 『승람』 성립 시기의 정치적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1) 酷刑 濫發의 恐怖政治

근년에 대중매체에 개재(掲載)된 한 칼럼⁴³⁾에서는, 『조선왕조실록』(이하 ‘실록’으로 약칭)의 형벌 집행 기사를 계수(計數)하여 도표화한 통계자료가 제시되었다. 이는 그 계수 과정에서 『실록』이라는 방대한 사료의 개별적·심층적 독해를 통한 상세사항의 검증 절차가 얼마나 이루어졌는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분명한 한계가 있는 자료다. 이선시기 형벌의 집행 추이(推移)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별도의 심층적 연구가 필요한 주제일 것이다. 그러나 그 수치화(數値化)한 통계에서 직관적으로 드러나는 바가 선명하기 때문에, 본고의 주제와 관련한 대략적인 시대상을 나타내기에는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그래서 본고에서는 『승람』 성립 시기의 대체적 시대상에 접근하기 위한 방편으로, 일단 해당 칼럼에서 제시한 통계를 활용하고자 한다. 해당 통계를 바탕으로, 이선 역대 군주들이 판결한 사형(死刑)⁴⁴⁾ 및 혹형(酷刑)⁴⁵⁾ 기록의 건수(件

43) 아주경제 - <https://www.ajunews.com/view/20191218150515363>

형벌 문제에 대한, 해당 칼럼의 주장에 동의한다는 의미로 인용한 것이 아님을 밝혀둔다.

44) 여기서는 사사(圖死)·교형(絞刑)·창형(斬刑)·거열(車裂)·능지처사(陵遲處死)의 5가지 형벌을 합쳐서 범주화하는 편의적 개념으로 사용한 말이다.

45) 여기서는 앞서 ‘사형’의 범주로 분류한 5가지 형벌 중, 지배층의 사형수예에만 선별적으로 ‘사(圖)’하는 이선 특유의 초법적(超法的)·온정적 특권제도였던 ‘사사’와, 인류 역사상 가장 일반적인 처벌법인 ‘교형’을 제외한, 엄격적·가혹적이며 대중을 향한 효시(崇示)의 성격을 가진 처벌법인 나머지 세 가지

數)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1> 이선 역대 군주들의 사형 및 혹형 판결 건수⁴⁶⁾

군주명	사형 판결	혹형 판결	재위년수	사형/년	혹형/년
태조	23	17	6	3.83	2.83
정종	0	0	2	0.00	0.00
태종	63	34	18	3.50	1.88
세종	416	257	32	13.00	8.03
문종	7	3	2	3.50	1.50
단종	44	25	3	14.66	8.33
세조	136	86	12	11.33	7.16
예종	51	42	1	51.00	42.00
성종	394	234	25	15.76	9.36
연산군	96	69	12	8.00	5.75
중종	168	76	38	4.42	2.00
인종	3	2	1	3.00	2.00
명종	68	24	22	3.09	1.09
선조	47	28	41	1.14	0.68
광해군	89	14	15	5.93	0.93
인조	53	8	26	2.03	0.30
효종	13	2	10	1.30	0.20
현종	17	7	15	1.13	0.46
숙종	141	46	46	3.06	1.00
경종	34	7	4	8.05	1.75
영조	154	91	52	2.96	1.75
정조	49	10	24	2.04	0.41
순조	31	8	34	0.91	0.23
헌종	12	9	15	0.80	0.60
철종	2	0	14	0.14	0.00
고종	95	35	44	2.15	0.79
순종	32	0	3	10.66	0.00
합계·평균	2238	1134	519 ⁴⁷⁾	4.31	2.18

<표1>에 나타난 역사상은, 흔히 통용되는 역사 이야기들의 선입관과 관념적 프레임 을 거스른다. 사실상의 창업군주로서 ‘숙청과 공포정치’의 대명사 같은 이미지가 있는 태종(太宗)은, 이 통계에 의하면 이선 평균을 밑도는 빈도의 혹형만을 판결했다. 반면 이른바 ‘애민(愛民)의 문화 군주’로 통하는 ‘세종대왕’은, 빈도(頻度)로는 이선 평균의 약 4배에 가까우며 절대 건수로는 가장 많은 혹형을 판결하였다. 그리고 세조(世祖)에서 성종(成宗)에 이르는 기간은, 그야말로 혹형 남발(濫發)의 공포정치 시대였다고 할

를 따로 범주화하는 편의적 개념으로 사용한 말이다. 동서고금에서 잔혹한 방법의 처형과 그 대중적 묘시는, 공포를 통한 질서 확립의 수단이다.
46) 해당 컬럼에 의하면, “조선왕조실록을 참조하여” 계수(計數)한 것이라고 한다. 전쟁이나 내란 등 사변(事變)의 와중에 이루어진 ‘군법 집행’이나 집단적 처분 같은 것들은 제외된, 부분적 통계다.
47) 도표상 재위년수의 합계가 아닌, 이선 왕조의 총 존속기간이다.

수 있다. 특히 그 가운데의 예종(睿宗)은 1년여에 불과한 재위기간 동안,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독보적 빈도의 혹형을 남발하며 공포정치의 정점(頂點)을 이루었다. ‘무도(無道)한 광기(狂氣)의 폭군’이라는 이미지가 있는 연산군(燕山君) 시기에 이르러서는, 오히려 혹형 남발이 전대(前代)에 비해 다소나마 완화(緩和)되는 추세를 보였다. 그리고 중종(中宗) 이후로 혹형 빈도는 크게 줄어들었고, 말기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갔다. 실권이 없었다고 알려져 있는 정종(定宗)과 철종(哲宗)은, 이 통계상으로는 재위기간 동안 단 1건의 혹형도 판결하지 않았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실권이 없었던 단종(端宗)은 달랐는데, 이는 대체로 단종 재위기간부터 이미 실권자였던⁴⁸⁾ 세조의 의지에 의한 행적으로 볼 수 있다.

세종에서 성종까지, 약 70여년에 걸친 소위 ‘조선왕조 최고 융성기’의 통계적 실체는, 도성(都城)의 저자거리에서 유혈(流血) 낭자한 혹형의 참상이 다반사였던 공포정치의 시대였다. 그리고 이 시기는, 바로 본고의 주제인 『승람』의 근간이 성립되었던 시기이기도 하다. 『승람』은 그 공포정치 시대가 낳은 결과물이었고, 따라서 『승람』편찬의 시대적 배경을 이야기하려면 1차 사료의 검토를 통해 이 시기 공포정치의 배경과 목적을 논해야 한다. 세종에서 성종에 이르는 시기에는, 무엇을 위하여 공포를 통한 ‘법질서 확립’에 집착하였던 것인가?

2) 性理敎 - 排他的 唯一 統治理念

세종에서 성종에 이르는 시기에 이루어진 정치적·사상적 변화의 핵심은, 성리교가 배타적 유일 통치이념으로 고착화했다는 사실에 있다. 세종의 즉위 이듬해인 1419년 12월, 명나라로부터 처음으로 『성리대전(性理大全)』이 도입되었다.⁴⁹⁾ 『성리대전』은 명나라 성조(成祖) 영락제(永樂帝)의 명령으로 호광(胡廣) 등 42명의 학자가 성리교의 교리(敎理)를 집대성하여 70권으로 편집한 서적으로, 1415년에 완성되었으며, 송나라와 원(元)나라 시대의 학자 120여명의 설명을 채택하여 수록하였다고 한다.⁵⁰⁾ 세종은 명나라에서 완성 후 4년밖에 지나지 않은 최신(最新)의 방대한 교리 연구 성과물, 즉 현행 주류 한국사에서 흔히 말하는 이른바 ‘선진 문물’을 도입하였던 것이다.

세종은 1425년에 『성리대전』을 비롯한 유교 경전의 거국적인 인쇄 사업을 지시하였고⁵¹⁾ 그 이듬해에는 명나라에 요청하여 『성리대전』을 추가 도입하였다.⁵²⁾ 그리고 경연(經筵)에서 몸소 『성리대전』의 내용에 대해 논평하는 등,⁵³⁾ 적극적인 성리교 이념

48) “……수양은 ……혼자서 영의정과 이·병조를 겸했으니 ‘왕’이란 말만 없을 뿐 사실상의 임금이었다.” - 이덕일, 『이덕일의 한국통사』 다산북스, 2019, 355쪽.
49) 세종실록 6권, 세종 1년 12월 7일 정축.
……特賜御製序新修性理大全, 四書五經大全及黃金一百兩, 白金五百兩, 色段羅衫各五十匹, 生絹五百匹, 馬十二匹, 羊五百頭以寵異之.
50)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https://encykorea.aks.ac.kr/> ‘성리대전’ 항목에 의거하였다.
51) 세종실록 30권, 세종 7년 10월 15일 경진.
傳旨忠淸·全羅·慶尙道監司, “欲印性理大全·五經·四書, 其冊紙給價換樁, 忠淸道三千(帖)(帖), 全羅道四千帖, 慶尙道六千帖, 造作以進.”
52) 세종실록 34권, 세종 8년 11월 24일 계축.
……初尹鳳之邇也, 上讀(大全)四書五經·性理大全·宋史等書籍, 時遇之選, 帝特賜之.

도입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후 예종 시기인 1469년에 예결(詔關)한 명나라 사신들이 가져온 선물 목록에도 『성리대전』이 포함되어 있었고,⁵⁴⁾ 성종은 재위 20년째인 1489년에 『성리대전』의 권단(卷端)에 주석(註釋)을 다는 작업을 지시하였다.⁵⁵⁾ 이후 성종 시기의 경연에서 여러 차례 『성리대전』의 진강(進講)이 이루어진 기록⁵⁶⁾은, 성리교를 유일 통치이념으로 삼은 종교국가 체제가 완성된 모습을 보여준다.

세종에서 성종에 이르는 시기에, 성리교는 명실상부한 유일 통치이념이자 사실상의 국교(國敎)로 고착화되었던 것이다. 혹형 남발의 공포정치를 통한 '법집서 확립'이 절정에 이르렀던 시기와, 성리교가 유일 통치이념으로 고착화된 시기가 오롯이 겹친다는 사실은, 양자간의 밀접한 상관관계를 암시한다.

또한 성종 시기에는 『주자대전(朱子大全)』이라는 또 하나의 성리교 경전이 도입되었다. 성종 7년인 1476년 사은사(謝恩使)로 명나라에 다녀온 정효상(鄭孝常)이, '근래 소찬(近來所撰)'의 『주자어류(朱子語類)』와 『주자대전』을 진상(進)하였다.⁵⁷⁾ 이후 중종 시기에 이르러 "주자 문집의 간행에 대한 요구"가 있었고, "1515년에 홍문관 부제학 김근사가 『朱文公集』 등 홍문관에 1건씩 있던 18종의 서적을 간행하여 널리 보급하자고 건의하여 국왕의 승인을 받았다." 그리고 "1543년에 비로소 주자 문집의 정본인 『주자대전』이 간행되었다."⁵⁸⁾

세종 시기에 도입되어 성종 시기에 유일 통치이념의 경전으로 자리잡은 명초(明初)의 간행물 『성리대전』은, '송나라와 원나라 시대의 학자 120여명의 학설들을 채택하여 수록'한 책이었다. 반면, 중종 시기 이후로 본격적으로 간행·보급된 송말(宋末)의

53) 세종실록 34권, 세종 8년 12월 8일 정묘.
御經筵。檢討官侯循啓曰。"臣見皇帝所賜性理大全。其文似徵於眞西山甲集。議論精通。衆說該備。誠學者所當熟玩也。願刊行康廬。使登科年少之儒習讀。研窮理學。且爲文章者。必精於理學。乃能大達。"上曰。"然。吾見甲集。議論通暢。誠可熟玩。然非獨甲集。乙集亦好。"

54) 예종실록 4권, 예종 1년 윤2월 7일 임술.
崔安。鄭同。沈滄等。將皇帝別賜五倫書。五經大全。性理大全。四書。白玉玲瓏天鹿帶。黑白玉玲瓏架上藏。蘭桂。各樣四色錦。羅紵絲。熟絹。象牙等物。面陳。……

55) 성종실록 226권, 성종 20년 3월 9일 정묘.
傳于弘文館曰。"性理大全必參考諸書然後。乃通其意。諸書浩繁。披閱爲難。可於卷端。考諸書者之。"

56) 성종실록 243권, 성종 21년 8월 21일 신축
御經筵。講性理大全。至"依其故而存其良"之語。……
성종실록 258권, 성종 22년 10월 21일 갑자
御經筵。講性理大全。至"寬和不與佞幸交納。姦臣交結佞幸"等語。……
성종실록 259권, 성종 22년 11월 6일 무인
御經筵。講性理大全。至"古之聖王。所以能化惡充爲善良者。由不之絕也。"……
성종실록 259권, 성종 22년 11월 11일 계미
御經筵。講性理大全。至論君德。……
성종실록 259권, 성종 22년 11월 16일 무자
御經筵。講性理大全。至"臣之於君。不可阿諛逢迎。"……
성종실록 260권, 성종 22년 12월 7일 기유
御經筵。講性理大全。至論"君子伏節死義。"……
성종실록 260권, 성종 22년 12월 12일 갑인
御經筵。講性理大全。至"王者富民。霸者富國。"……

57) 성종실록 67권, 성종 7년 5월 13일 을묘.
謝恩使鄭孝常。朴良偕回自京師復命。……仍進朱子語類。大全二十卷曰。"此書近來所撰。故進之。"

58) 최경훈, 『조선시대 『주자대전』 선집서의 간행과 구성에 관한 연구』, 『한국문화원정보학회지』, 제 54권 제 2호(2020), 437쪽.

간행물 『주자대전』은, 성리교의 교조(敎祖)인 주희(朱熹)의 글만을 모아놓은 문집이었다.⁵⁹⁾ 이선 성리교의 중심 경전은, 명나라에서 도입한 최선의 '선진 문물'이었던 『성리대전』으로부터 과거 송나라 시대의 유물인 『주자대전』으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갔다. 교조주의(敎條主義)로 퇴행(退行)하며 주자교(朱子敎)로 변질되어갔던 것이다.

동시대 명나라에서는 왕수인(王守仁)을 필두로 하여 새로운 논리구조의 교리를 장안하였고, 그것이 점차 기존의 교리를 대체해갔다. 그런데 이선의 성리교는 정반대의 퇴행적(退行的)-복고적(復古的) 반동(反動)으로 흘러갔다. 16세기 이후 이선에서는, 자생(自生)하며 혁신·진보하는 학문적 활력이 사라졌다. 그래서 17세기 초에는 이선의 관료가 스스로 '학풍(學風)의 경직(硬直)'을 심각하게 인식할 지경에 이르렀다.⁶⁰⁾

이것이 필연적 귀결임을 이해하는 것이 어렵지는 않다. 이선의 성리교는 혹형 남발의 공포정치를 통해 권위적·압제적 법집서의 확립에 활용된, 배타적 유일 통치이념이었다. 처음부터 속성(屬性) 자체가 그랬기 때문에. 종국(終局)에는 '사문난적(斯文亂賊)'을 운운하며 개인숭배(個人崇拜)에 빠진 시대착오적 유일신교(唯一神敎)로 타락(墮落)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3) 南怡의 獄事 - 宗教國家 體制의 固化

성리교 공포정치의 정점이었던 예종 시기에는, 이선 역사상 하나의 상징적인 변곡점(變曲點)이라 할 만한 사건이 있었다. 남이(南怡)의 옥사(獄事)가 그것이다. 남이는 세조 시기, '이시애(李施愛)의 난(亂)' 진압과 명나라에 의해 동원된 '건주위(建州衛) 여진 정벌' 등, 북방의 전장(戰場)에서 용맹을 떨친 청년 장수였다.⁶¹⁾ 그는 세조 사후(死後) 새 군주 예종에 의해 모반(謀叛) 혐의를 받았다. 그리고 북방 전역(戰役) 당시에 그의 상관(上官)이었던 강순(康純)을 비롯한 여러 관련 인물들과 함께, '대역죄'에

59) "……저자가 일생을 두고 저작한 모든 학설을 주로 하고 여러 학자들의 질의(質疑)에 대해 회답한 편지들과 시(詩)·기(記)·명(銘)·비문(碑文)·묘지(墓誌) 등 문예에 관한 저작들을 함께 모은 방대한 저작이다. 주와 사후 그의 문인(門人)들이 편찬한 것으로, 본편 100권은 보존되어 오던 것을 모은 것이고, 별집 11권은 그의 문인 여사로(餘思魯)가 모은 것인데, 속집 10권은 누구의 손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정확히 알 수 없다. 이것들을 모아 완전히 편찬한 것은 송 도종(庾宗) 함순(咸淳) 원년(1265)이며 저자의 후손 옥(玉)이 교정하여 《주자대전집(朱子大全集)》이라는 이름으로 간행하였다.……" - 두산백과(doopedia) - <https://www.doopedia.co.kr> '주자대전' 항목.

60) 『露谷筆』露谷漫筆 我國學風硬直
……而我國則無論有議無議。挾英讀書者。皆稱誦程朱。未聞有他學焉。豈我國士習果賢於中國耶。曰非然也。中國有學者。我國無學者。……

61) 세조실록 43권, 세조 13년 7월 14일 정축.
……北靑之戰。怡出沒陣前。殊死力戰。所向披靡。身被四五箭。容色自若。……
세조실록 43권, 세조 13년 7월 25일 무자.
是日夜三鼓。鎮北將軍康純先險山介嶺。大將魚有沼次險鍾介嶺。都摠使邊繼至平浦。純報渡曰。"我以獅子衛將軍南怡。猛將李叔琦爲前鋒。至鍾介嶺。賊設木寨。令北靑人張奉。帥百餘兵守之。怡先破寨突擊。斬首二級。生擒二十餘人。取輜重十餘駄。餘黨逃走。"……

세조실록 43권, 세조 13년 9월 6일 무진.
大司憲梁誠之進平朔方頌曰。"恭惟我聖上之十三年夏五月。賊臣李施愛。以古州叛。……於是。裨將南怡等。突戰奪賊旗。斬賊數百。大軍乘勝追奔。斬首千餘級。越磨天。磨雲嶺。至古州。嶺東驛。……"

세조실록 43권, 세조 13년 9월 15일 정축.
諭右參贊尹弼商。主將康純。大將魚有沼。南怡曰。"昨日諭。"以本月二十七日。中國兵定攻建州。我兵亦於其日攻之。"……"

적용되는 효시적(敎示的) 혹형인 ‘환(輶)’⁶²⁾에 처해졌다.⁶³⁾

남이의 옥사를 일으킨 주체로는 흔히 그를 교변(告變)했던 ‘간신(姦臣)의 대명사’ 유자광(柳子光)이 언급되어 왔다. 그러나 1차 사료에는 그것이 예종에 의해 기획되고 추진된 숙청 작업이었음을 드러내는 정황이 나타나 있다. 예종은 즉위 직후 남이를 한직(閑職)으로 좌천시켰고,⁶⁴⁾ 유자광의 교변을 받아마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 추호(秋毫)의 의심도 없이 매우 신속하게 옥사를 일으켰다.⁶⁵⁾ 그리고 이선의 국문(鞠問)이라는 것이 대개 그러하듯, 온갖 억지들로 가이어 남이를 ‘역적’으로 만들었다. 처음엔 적극적으로 스스로를 변호하던 남이는, 왕의 강력한 숙청 의지로 만들어진 뒷에서 빠져나갈 길이 없음을 알았는지 자포자기하는 모습을 보였다.⁶⁶⁾ 남이의 옥사는, 이씨(李氏) 왕권과 성리교 체제의 잠재적 위협 요인을 선제적으로 제거하고, 공포를 통해 군주의 위엄을 세우고 본보기를 삼으려는, 예종의 강력한 의지가 작용한 사건이었다.

남이는 옥사 이후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무속(巫俗) 등 민간 신앙에서 흔히 여말(麗末)의 최영(崔瑩)과 함께 양대 ‘신령(神靈)’으로 받아들여졌다고 전해진다. 이는 국가와 시대를 잘못 만나⁶⁷⁾ 채 펼치지도 못하고 사라진 그의 무재(武才)를 애석해하는 대중적 정서와 함께, 그의 옥사가 무고(誣告)에 의한 것이었다는 폭넓은 ‘공감대’가 오랜 기간 존재해왔기 때문에 가능했던 현상일 것이다. 그리고 옥사로부터 3백여 년이 지난, 순조(純祖) 1818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신원(伸冤)되었다.⁶⁸⁾ 이러한 사

62) 대체로 거열(車裂)과 같거나 유사한 형벌이라고 여겨진다.

63) 예종실록 1권, 예종 즉위년 10월 27일 계축.

上曰, “汝不知如是而謀反邪?” 卽命會百官, 輶純·怡·敬治·永壽·自義·孝良·福老·致權·自阿于市. 衆首七日.

64) 예종실록 1권, 예종 즉위년 9월 7일 계해.

初, 以兵曹判書朴仲善爲平安中道節度使, 宜山君 南怡兵曹判書, 刑曹判書姜希孟嘗語中樞府知事韓繼韓曰, “怡之爲人, 不宜典兵.” 至是, 繼韓白上, 以仲善復爲兵曹判書, 怡 宜山君兼司僕將, 吳子慶 平安中道節度使.

65) 예종실록 1권, 예종 즉위년 10월 24일 경술.

昏, 兵曹參知柳子光, 面奉政院, 告入直承旨李克增·韓繼純曰, “臣有急啓事.” …… 上曰, “然則何以處之?” 子光對曰, “晝夜往捕, 恐或亡匿, 待天明, 令一人賣命降召之, 則可致矣.” 上曰, “然.” 壽命曰, “何必待明?” 卽命召克增·繼純. 命繼純與入直司僕將居平君 復, 率軍士往捕之, ……

66) 예종실록 1권, 예종 즉위년 10월 27일 계축.

上命相反逆之由, 怡對不以實, 乃杖之. 怡大言曰, “願姑徐俟. 臣所謀之事, 言之則長. 願賜一杯酒, 且振繫索. ——陳之.” 命賜酒縱索. 怡曰, “臣果欲謀反, 與柳子光相語之言皆是.” ……

67) 예종실록 1권, 예종 즉위년 10월 27일 계축.

……嘆曰, “英雄之才, 用之不善.” ……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자포자기하여 내뱉은, ‘영웅의 재능을 나쁘게 썼다’는 한탄은, 자신의 무재(武才)로써 받아들여졌던 국가 즉 이선 그 자체에 대한 극도의 배신감과 자괴감을 토로한 것으로 읽힌다.

68) 순조실록 21권, 순조 18년 3월 10일 정미.

……又啓言, “康純·南怡死踰三百年. 名在丹青, 而因其子孫之零替, 且屬久遠, 至今不得伸雪. 國人冤之. 純與怡, 俱爲柳子光所(搆)(構)誣, 無罪及禍, 而怡又驍勇絕倫, 屢建奇功, 爲柳子光所深忌. 以詩語羅織殺之, 野史多載其事矣. 昔在先朝, 篋臣有訟其冤者, 下教若曰, ‘此等事, 留待後日, 作爲積善好事甚好.’ 聖明在上, 無枉不伸, 而未遑之典, 若待今日. 請敕領議政康純, 兵曹判書南怡, 竝伸雪其冤, 復其官爵.” 從之. ……

선조(宣祖) 시기에 이미 남이의 신원(伸冤) 요구가 있었고, 선조 또한 그것이 잘못된 옥사였음을 인정하였는데, 괴이한 이유를 내세워 신원은 거절하였다는 이야기가 등장한다. 그것이 잘못된 옥사임은 이미 선조 시기에도 널리 알려져 있었지만, 왕실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할 수는 없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선조실록』에는 보이지 않는다. 성리교 국가 이선의 체제 그 자체와 관련된 문제였기 때문에, 오래도록 정사(正史)에 기록될 수 없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실은, 예종에 그 옥사의 원인이 특정 정파(政派)나 개인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국가 체제의 근간을 이루는 이념, 즉 성리교 그 자체에 있었음을 보여준다. 남이의 국문 과정에서는 성리교적 예법(禮法)의 논리가 활용된 사실도 확인되며,⁶⁹⁾ 이는 성리교 공포정치와 실체가 선명하게 드러난 사례다. 엄혹한 종교국가 이선에서, ‘충의지사’의 기준은 본분(本分)이 아닌 예법에 있었다. 본분과 예법이 충돌할 때, 본분을 선택하는 자는 ‘대역(大逆)’으로 취급되어 목숨이 위태로워졌다.

예종이 성리교 예법을 내세워 일으킨 잔혹한 옥사로 숙청된 공신들은, 국가와 왕실을 위해 북방 국경 지역의 분쟁에서 무위(武威)를 떨치며 그 능력을 입증했던 무장(武將)들이었다. 이는 적어도 예종 시기를 기점으로 하여, 이선 왕조의 정책 지향점이 부국강병과 강역 수복(收復)으로부터 멀어졌음을 의미한다. 또한 이는 성리교 질서 확립을 통한 종교국가 체제의 안정화가 절대적인 최우선 정책목표를 공포(公布)하는 선언과도 같았다. 이것은 예종 개인의 감작스러운 일탈이 아니라, 이미 세종 시대에 시작되었고 예종 사후에도 그대로 이어진, 성리교 종교국가화의 거대한 흐름이었다. 따라서 그러한 시대에 ‘조선의 악비(岳飛)’를 자처한⁷⁰⁾ 남이와 같은 자들은, 국가에 필요한 인재이기보다 기고만장(氣高萬丈)하여 질서를 어지럽히는 탕아(蕩兒)이자 잠재적 위험인물로 간주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남이의 옥사는, 이후 시대 이선 사회에 ‘모난 돌이 정 맞는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남겼을 것이다. 예종의 혹형 남발은 예종 본인이 감지했을 정도로, 상당한 민심(民心)의 동요(動搖)를 일으켰던 정황도 확인된다.⁷¹⁾

4) ‘收書令’ - 反體制的 記錄文化遺産의 湮滅

『승람』의 내용에서 부국강병에 필요한 실용적 경제·군사 정보와 지표들이 배제되고 성리교 이념이나 지배층의 고급문화 영역과 관련된 사항들에는 많은 분량이 할당되었다는 사실은 이미 기존 연구에서 언급되었다. 전술(前述)한 시대 상황을 인지하고 나면, 그 의미는 한층 더 명확하게 이해된다. ‘강상(綱常)’의 종교적 질서를 체제의 존재 이유로 삼아 반체제분자(反體制分子)를 쫓아내는 엄혹한 종교국가에서는, 그 질서에 부합하지 않는 종교나 사상을 탄압하고 불편한 내용을 담은 기록문화유산을 인멸(湮滅)하는 것도 자연스러운 논리적 귀결일 것이다.

기록문화유산에 대한 선택적 인멸 행위는, 인류사 전반에서 드물지 않게 나타났다

69) 예종실록 1권, 예종 즉위년 10월 24일 경술.

……又問怡曰, “南愈言汝射的安穩, 汝何辛突前射的矣乎?” 對曰, “臣武人也. 恐弓力將竭, 與金昌孫·朴自阿·李仲淳輩共射, 又與趙顯達·姜利敬射.” ……

예종실록 1권, 예종 즉위년 10월 27일 계축.

…… 怡對曰, “臣自少棄弓馬, 儼邊境有事, 則先自建功, 以輔國家, 臣之志也. 臣本忠義之士.” 上曰, “汝稱忠義之士, 何成服前食肉乎?” 對曰, “得病故食之.”

70) 예종실록 1권, 예종 즉위년 10월 24일 경술.

……怡始知子光來啓而驚, 以頭擊地曰, “子光素不快於臣, 故譖臣. 臣忠義之士, 平生以岳飛自許, 安有是事?” ……

71) 예종실록 4권, 예종 1년 3월 21일 을사

傳于院相崔恒曰, “人主立法, 必欲行之. 犯罪之人, 不可赦也. 然邇來刑人頗多, 外間愚民, 徒聞刑人, 必有以我爲新服而安刑之者, 予深軫焉. 其欲教示中外, 俾愚民悉曉予意.” ……

일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중세기(中世紀)의 종교국가 이전에서 지극히 종교국가다운 기록문화유산 인멸을 자행했던 사실이 특별할 것은 없다.

사관(史官) 김상직(金南直)에게 명령하여 충주(忠州) 사고(史庫)의 서적을 취(取)하여 진상(進)하게 하였다. 『소아소씨병원후론(小兒巢氏病源候論)』, 『대광익회옥편(大廣益會玉篇)』, 『귀곡자(鬼谷子)』, 『오장육부도(五臟六腑圖)』, 『신조보동비요(新彫保童秘要)』, 『광제방(廣濟方)』, 진랑중(陳郎中)의 『약명시(藥名詩)』, 『신농본초도(神農本草圖)』, 『본초요괄(本草要括)』, 『오음지장도(五音指掌圖)』, 『광운(廣韻)』, 『경전석문(經典釋文)』, 『국어(國語)』, 『이아(爾雅)』, 『백호통(白虎通)』, 유향(劉向)의 『설원(說苑)』, 『산해경(山海經)』, 왕숙화(王叔和)의 『맥결구의변오(脈訣口義辨誤)』, 『전정록(前定錄)』, 『황제소문(黃帝素問)』, 『무성왕묘찬(武成王廟讚)』, 『병요(兵要)』, 『전후한저명론(前後漢著明論)』, 『계원필경(桂苑筆耕)』, 『전한서(前漢書)』, 『후한서(後漢書)』, 『문수(文粹)』, 『문선(文選)』, 『고려역대사적(高麗歷代事迹)』, 『신당서(新唐書)』, 『신비집(神祕集)』, 『책부원귀(冊府元龜)』 등의 서책(書冊)이었다. 또 명령하여 말하기를, “『신비집』은 피보이지 못하게 하고(毋得披閱), 별도로 봉해서 진상하라(別封以進).” 라고 하였다. 주상(上)이 그 『신비집』을 열람(覽)하고 말하기를, “이 책에 기재된 바는 모두 괴상하고 헛되며 올바르지 않은 말들(怪誕不經之說)이다.” 라고 하였다. 대언(代言) 유사눌(柳思訥)에게 명령하여 그것을 불태웠고(焚), 그 나머지는 춘추관(春秋館)에 내러 그것을 소장(藏)하였다.⁷²⁾

기록에 나타난 사건의 전개로 미루어보면, 태종은 『신비집』이라는 문헌에 대한 대략적인 정보를 이미 알고 있었음이 분명하다. 아마도 태종은 ‘괴상하고 헛되며 올바르지 않은 말들’이 기재된 『신비집』의 존재가, 성리교를 신봉하는 사대부들이 중심이 되어 건국한 이선의 체제에 해롭다고 인식하였기 때문에, 그 책만을 특정하여 내용 유출을 막는 밀봉 운송을 지시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은밀히 그것을 열람하여 내용을 확인한 후, 결국 분서(焚書)를 지시하였다. 『신비집』은 오늘날 완전히 실전(失傳)되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알 길은 없다.

태종의 분서는 분명한 기록문화유산 인멸 행위였지만, 그 대상은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소장하는 문헌에 한정되었다. 이선 정부의 본격적인 기록문화유산 인멸 정책은, 역시 성리교 공포정치의 절정기인 세조-예종-성종 시기에 실행되었다.

72) 태종실록 24권, 태종 12년 8월 7일 기미.

命史官金尙直, 取忠州史庫書冊以進. 小兒巢氏病源候論·大廣益會玉篇·鬼谷子·五臟六腑圖·新彫保童秘要·廣濟方·陳郎中藥名詩·神農本草圖·本草要括·五音指掌圖·廣韻·經典釋文·國語·爾雅·白虎通·劉向說苑·山海經·王叔和·脈訣口義辨誤·前定錄·黃帝素問·武成王廟讚·兵要·前後漢著明論·桂苑筆耕·前漢書·後漢書·文粹·文選·高麗歷代事迹·新唐書·神祕集·冊府元龜等書冊也. 且命曰, “神祕集, 毋得披閱, 而別封以進.” 上覽其集曰, “此書所載, 皆怪誕不經之說.” 命代言柳思訥焚之, 其餘下春秋館藏之.

팔도(八道)의 관찰사(觀察使)들에게 타일러(諭) 말하기를, “『고조선비사(古朝鮮秘詞)』, 『대변설(大辯說)』, 『조대기(朝代記)』, 『주남일사기(周南逸士記)』, 『지공기(誌公記)』, 『표훈삼성밀기(表訓三聖密記)』, 『안함로원동증삼성기(安含老元董仲三聖記)』, 『도증기(道證記)』, 『지이성모하사량훈(智異聖母河沙良訓)』, 문태산(文泰山) 왕거인(王居仁) 설업(薛業) 등(等) 3인(人)의 기록(記錄), 『수찬기소(修撰企所)』 1백여 권, 『동천록(動天錄)』, 『마슬록(磨蝨錄)』, 『통천록(通天錄)』, 『호중록(壺中錄)』, 『지화록(地華錄)』, 『도선한도창기(道詵漢都講記)』 등의 문서(文書)는 사처(私處)에 소장(藏)해서는 안 된다. 만약 소장한 자가 있으면 진상(進上)을 허령(許令)하며, 자원(自願)하는 서책(書冊)으로써 회사(回賜)할 것이다. 그것을 공사(公私)와 사사(寺社)에 널리 타일러(諭).” 라고 하였다.⁷³⁾

아마도 성리교 이념과 질서에 해롭다고 간주되었을, 특정한 민간 소장 기록문화유산을 금서(禁書)로 지정하고 그 인멸을 지시한, 이른바 ‘수서령(收書令)’이다. 세조의 ‘수서령’은 ‘서책의 회사(回賜)’라는 나름의 보상을 내건, 소극적 권고 사항에 불과하게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사처(私處)에 소장(藏)해서는 안 된다’, 즉 민간 소장 기록문화유산을 인멸하겠다는 의지를 왕명으로 엄중하게 드러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타일러(諭)’를 듣지 않고 해당 문헌을 은닉한 사실이 발각된 자에 대한 처벌을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왕의 엄중한 ‘허령(許令)’을 무시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미 세조 시기에 상기한 문헌들의 인멸이 상당 부분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측이 가능하다. 세조가 본격화한 기록문화유산 인멸 정책은, 그 후대(後代)에 더욱 강압적으로 철저하게 관철되었다.

예조(禮曹)에 전(傳)하여 말하기를, “『주남일사기(周南逸士記)』, 『지공기(志公記)』, 『표훈천사(表訓天詞)』, 『삼성밀기(三聖密記)』, 『도증기(道證記)』, 『지이성모하사량훈(智異聖母河沙良訓)』, 문태(文泰)·옥거인(玉居仁)·설업(薛業) 3인(人)의 기(記) 1백여 권, 『호중록(壺中錄)』, 『지화록(地華錄)』, 『명경수(明鏡數)』 및 모든 천문(天文)·지리(地理)·음양(陰陽)에 관한 서적을 가장(家藏)한 자는, 경주(京中)에서는 10월 그믐날(晦日)까지 한정하여 승정원(承政院)에 바치고(呈), 외방(外方)에서는 가까운 도(道)는 11월 그믐날까지, 먼 도(道)는 12월 그믐날까지 거주하는 읍(邑)에 상납(納)하라. 상납한 자는 2포계를 높여 주되, 스스로 상반기를 원하는 자와 공사(公私)에겐 면포(綿布) 50필(匹)을 포상(賞)하며, 은닉(隱匿)하고 바치지 않는 자는 다른 사람의

73) 세조실록 7권, 세조 3년 5월 26일 무자.

諭八道觀察使曰, “『古朝鮮秘詞』·『大辯說』·『朝代記』·『周南逸士記』·『誌公記』·『表訓三聖密記』·『安含老元董仲三聖記』·『道證記』·『智異聖母河沙良訓』·文泰山王居仁薛業等三人記錄·『修撰企所』一百餘卷·『動天錄』·『磨蝨錄』·『通天錄』·『壺中錄』·『地華錄』·『道詵漢都講記』等文書, 不宜藏於私處. 如有藏者, 許令進上, 以自願書冊回賜. 其廣諭公私及寺社.”

진고(陳告)를 받아들여 진고한 자에게 위의 항목에 따라 논상(論賞)하고, 은닉자(匿者)는 참형(斬)에 처한다. 그것을 중외(中外)에 속히 타이르(諭).” 라고 하였다.⁷⁴⁾

여러 도(諸道)의 관찰사(觀察使)에게 하서(下書)하여 말하기를, “앞서 『주남일사기(周南逸士記)』, 『지공기(志公記)』, 『표훈천사(表訓天詞)』, 『삼성밀기(三聖密記)』, 『도중기(道證記)』, 『지이성모하소량훈(智異聖母河少良訓)』, 문대(文泰)·왕거인(王居仁)·설업(薛業) 3인(人)의 기(記) 1백여 권과, 『호중록(壺中錄)』, 『지화록(地華錄)』, 『명경수(明鏡數)』와 모든 천문(天文)·지리(地理)·음양(陰陽)에 관한 여러 서적을 남김없이 살살이 찾아내어(無遺搜覓) 상송(上送) 하는 일을 이미 하유(下諭)하였다. 상항(上項) 『명경수』 이상의 9책과 『태일금경식(太一金鏡式)』, 『도선참기(道統譚記)』는 전유(前諭)에 의거하여 상송하고, 나머지 책은 다시 수납(收納)하지 말며, 그 이미 수납(收納)한 것은 환급(還給)하라.” 라고 하였다.⁷⁵⁾

예종은 민간 기록문화유산에 대한 적극적·폭압적 인멸 정책을 강행하였고, 인멸 대상도 ‘모든 천문(天文)·지리(地理)·음양(陰陽)에 관한 서적’으로, 즉 서명(書名)조차 특정하지 않는 무제한으로 확장시켰다. 은닉 사실이 발각되면 목숨을 잃는 상황에서, 공포된 대상에 해당되거나 해당될 것으로 의심되는 전가(傳家)의 기록문화유산을 내놓지 않을 사람은 거의 없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남김없이 살살이 찾아내어(無遺搜覓)’ 인멸하는 정책의 성과는 혁혁하였을 것이다. 성종 또한 급사(急死)한 예종의 유지(遺志)를 대체로 계승하였는데, 다만 불특정·무차별 인멸 명령은 철회하였다. 성종의 기록문화유산 인멸 정책은 예종에 비해서는 다소 완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오늘날, 상기한 목록에 등장한 문헌들은 모두 실전되었다.⁷⁶⁾ 그러므로 세조-예종-성종의 성리교 공포정치 시기에, 성리교 종교국가 체제에 해롭다고 간주된 민간 기록문화유산의 대부분이 성공적으로 인멸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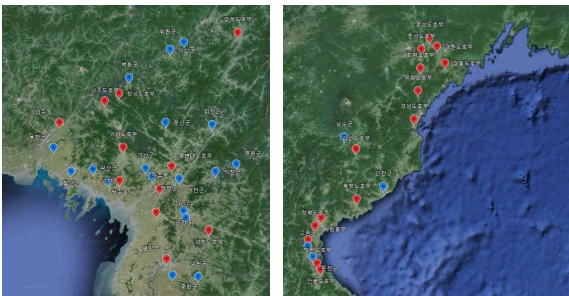
이상의 고찰을 통하여, 이선 역사에서 혹형 남발의 공포정치가 절정에 달한 시기과, 성리교를 유일 통치이념으로 하는 종교국가 체제가 고착화된 시기과, 정책적인 기록문화유산 인멸이 이루어진 시기가 일치함이 확인되었다. 여기에는 논리적으로 밀접한 상호 연관관계가 성립한다. 그리고 본고의 주제이자 중심 사료인 『승람』의 성립 시기

74) 예종실록 7권, 예종 1년 9월 18일 무술. 傳于禮曹曰, “『周南逸士記』, 『志公記』, 『表訓天詞』, 『三聖密記』, 『道證記』, 『智異聖母河少良訓』, 文泰王居仁薛業三人記一百餘卷『壺中錄』, 『地華錄』, 『明鏡數』及凡干天文地理陰陽諸書家藏者, 京中限十月晦日, 呈承政院. 外方近道十一月晦日, 遠道十二月晦日, 納所居邑, 納者超二殿, 自願受賞者及公私私口, 賞絹布五十匹, 隨所不納者, 許人陳告, 告者依上項論賞, 匿者處斬, 其違諭中外.”
75) 성종실록 1권, 성종 즉위년 12월 9일 무오. 下書諸道觀察使曰, “前者, 『周南逸士記』, 『志公記』, 『表訓天詞』, 『三聖密記』, 『道證記』, 『智異聖母河少良訓』, 文泰王居仁薛業三人記一百餘卷『壺中錄』, 『地華錄』, 『明鏡數』及凡干天文地理陰陽諸書, 無遺搜覓上送事, 曾已下諭. 上項『明鏡數』以上九冊, 『太一金鏡式』, 『道統譚記』, 依前諭上送, 餘書勿更收納, 其已收者還給.”
76) 『안함로원동중상상기(安含老元董仲三聖記)』의 경우, 20세기에 발견된 『한단고기(桓檀古記)』에 수록된 「삼성기(三聖記)」와 동일 문헌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현재 이를 검증할 방법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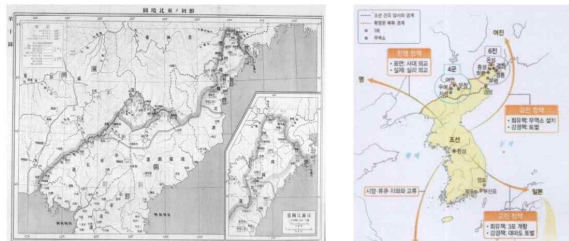
는 이 시기와 일치한다. 그러므로 『승람』이나 그 영향을 받은 후대 저작들의 성격에 대하여 논하려면, 이러한 『승람』 성립 시기의 시대적 배경을 고려해야만 한다. 이제부터는 장(章)을 달리하여, 『승람』에 나타난 역사지리인식의 실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III. 『新增東國輿地勝覽』의 歷史地理認識 檢討

1. 李氏朝鮮 當代 疆域의 認識 - 慶源部 認識의 昏迷



<그림1> 『승람』에 기재된 평안도·함경도 부(部)·목(牧)·군(郡)의 명칭에 근거한 위치 비정⁷⁷⁾



<그림2> 일제시기 『조선역사지리』와 현대 『한국사』 교과서의 조선전기 지도⁷⁸⁾

77) Google Earth - <https://earth.google.com/> 를 이용하여 표기하였다.
78) 최원호,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세종 6진의 위치 비정 비판」, 『역사와 융합』, 제14집(2023), 233 쪽 참조.

『승람』에 수록된 이선시기 주요 행정구역들의 명칭은, 대부분이 오늘날까지 그대로 남아있다. 각 행정구역들의 규모가 달라지고 구획(區劃)이 변경되고 중심부와 주변부가 교체되는 등의 변화들이 있었으나, 대체로는 오늘날 한국과 북한에서 사용하는 행정구역 명칭과 위치에 거의 합치된다. 『승람』에 기재된 행정구역들 중 부(部)·목(牧)·군(郡)의 위치를, 그 명칭과 대략적 위치관계에 의거하여 오늘날 동명(同名)의 행정구역에 비정하면, 그 전부가 오늘날 한국과 북한의 영토 내에 위치한다. 한반도의 특성상 강역인식의 핵심이 되는 부분은 평안도(平安道)와 함경도(咸鏡道)지역인데, 해당 행정구역들의 위치 비정은 대략 <그림1>과 같다.

그리고 이것은 <그림2>와 같은, 일제시기 아래의 ‘통설’이 표기된 지도들에 나타나 있는 이선 전기의 강역과 거의 일치한다. 『승람』에 등재된 행정구역의 위치를 그 명칭에 근거하여 직관적으로 비정한 결과는, “『조선역사지리』의 조선 전기 국경사관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지도”와, “『조선역사지리』의 사관(史觀)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못한”⁷⁹⁾ 현재 학계의 조선전기 동북계에 대한 인식⁷⁹⁾, 즉 ‘통설’과 거의 일치하는 것이다.

이른바 ‘세종의 6진(鎭)’으로 알려진 이선 동북방의 6도호부는, 그 행정구역명이 일제시기를 거쳐 북한으로 그대로 계승되었다. 이는 현재 한국의 ‘이북5도위원회’에서 게재하고 있는 행정구역 현황에서도 확인되는데, 1945년 시점까지 부령·회령·종성·온성·경원·경흥의 이름은 그대로 남았고, 단위명만 군(郡)으로 바뀌었다고 한다. 1948년 이후로 북한 정부에 의해 일부 명칭이 변경되기도 하였지만 대부분은 현재까지 유지되어서, 통용되는 각종 지도들에서도 어렵지 않게 확인이 가능하다.

그런데 근년의 한 연구에서는, 이 동북방 6도호부 중에서 본래 수부(首部)격의 위상을 가졌던 경원도호부(이하 경원부로 약칭)가 본래 두만강 북쪽의 평야지대에 있었다고 보았다.⁸⁰⁾ 이선 태종 시기에 경원부가 당시 ‘본국 경내(本國境內)’에서 ‘가장 먼 곳(最遠)’으로 인식된 사실⁸¹⁾은, 처음에는 두만강 북쪽에 있었던 경원부가 이후 어느 시점에서인가 현 북한 경원군(慶源郡)의 위치로 이치(移置) 되었을 가능성을 암시하기도 한다. 해당 연구에서는 경원부의 이치 시점을 1909년의 간도협정으로 보았는데⁸²⁾, 뚜렷한 근거를 제시하지는 않았다.

경원부의 본래 위치와 이치 시점에 대한 검토 문제는, 본고의 주제 밖이다. 여기서는 다만 『승람』의 경원부 관련 역사지리인식에 나타난 난맥상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경원부 문제의 1차 사료인 『지리지』에서는, ‘경원도호부’라는 같은 이름의 항목이길주목(吉州牧)의 하위 항목과 독립 항목으로 중복 등장하였다.

경원도호부(慶源都護府). …… 옛 공주(孔州)로 혹은 광주(匡州)라 칭하는데, 오랫동안

79) 최원호(2023), 234쪽.

80) 복기대, 「경원부의 위치에 관한 소론」, 『인문과학연구』, 68(2021), 196쪽.

81) 태종실록 25권, 태종 13년 1월 16일 병신.

……本國境內, 不滿三千里. …… 最遠慶源府一千六百八十里. ……

82) 복기대(2021), 204쪽.

동안 호인(胡人)에게 정거(據)되었다. 고려(高麗) 대장(大將) 윤판(尹瑗)이 호인을 구축(逐)하고 공험진방어사(公險鎭防禦使)를 설치하였다. 본조(本朝) 태조(太祖) 무인(戊寅)에, 덕릉(德陵)과 안릉(安陵)이 있으므로 승격하여(陞) 경원도호부로 삼았다. …… 태종(太宗) 9년 기축(己丑)에 소다모영기(所多毛營基)에 목책(木柵)을 설치하고 부(府)를 옮겼다(移). 10년 경인(庚寅)에 야인의 난(野人之亂)으로 인하여 경성군(鏡城郡)에 합쳤다. 17년 정유(丁酉)에 경성(군)(鏡城)의 두룡이현(豆龍耳峴) 이북을 분할하여 다시 도호부(都護府)로 삼고, 부가참(富家站)에 목책을 건설하여 치소(治)로 삼았다. …… 사방 경계(四境)는 동쪽으로 바다(海)와 거리(距)가 20리(里), 서쪽으로 경성(鏡城) 두룡이현(豆龍耳峴)과 거리가 40리, 남쪽으로 연해(連海) 굴포(堀浦)와 거리가 12리, 북쪽으로 공험진(公險鎭)과 거리가 700리, 동북쪽으로 선춘현(先春峴)과 거리가 7백여리, 서북쪽으로 오음의(吾音叻) 석성터(石城基)와 거리가 150리다. ……⁸³⁾

경원도호부(慶源都護府). …… 본래 고려(高麗)의 땅인데, 도중에 호인(胡人)에게 정거(據)되었다. 태조(太祖) 7년에 부(府)를 공주(孔州)에 처음으로 두고(初置) 비로소 경원(慶源)이라 호칭하였다. 태종(太宗) 9년에 부(府)를 소다모영기(所多毛營基)로 옮기고(移) 치소(治)로써 목책을 설치하였다. 10년에 알타리(斡朵里)의 추장(酋長) 동맹가첩목아(童猛哥帖木兒)가 심처(深處)의 야인(野人)을 유인(誘引)하여 [처]들어와 노략질(入寇)하고 부사(府使) 한흥보(韓興寶) 등을 살해했다(殺). 이에 민호(民戶)를 옮겨(徙) 경성군에 합속(合屬)시키니, 마침내 그 땅을 비웠다(塗虛其地). 17년에 경성(鏡城)의 두룡이현(豆龍耳峴) 이북을 분할하여 부가참(富家站)에 다시 도호부(都護府)를 두고 호칭을 복구하였다(復舊號). 세종(世宗) 15년에 맹가(猛哥)와 그 아들 관득(管秃)이 울적합(兀狄哈)에게 살해되었다. 16년에 경계의 복고(復古境)를 논의(議)함에도, 소다로(所多老) 땅이 넓고 기름지머(餽) 적로(賊路)의 요해(要害)라 하니, 이에 옛터(古基) 북편(北偏)의 회질가(會叱家) 땅에 벽성(壁城)을 설치하고, 남도(南道)의 민호(民戶)를 옮겨서 그것을 충실히 하여(實), 부(府)를 옮기고 판관(判官)과 토관(土官)을 두었다. 그 후에 석성(石城)으로 개축(改築)하였다. 24년에 진절제사(鎭節制使)를 두었다. 31년에 온성(溫城) 덕천보(德川堡) 북편의 산막동(山幕洞)에서 중대령(中大嶺)까지를 분할(割)하여 내속(來屬)하였다. …… 사방 경계(四境)는 동쪽으로 두만강(豆滿江)과 거리(距)가 20리(里), 서쪽으로 어두과원(於豆波峴)과 거리가 20리, 남쪽으로 바다(海)와 거리가 120리 남짓(有奇), 북쪽으로 마유산(馬乳山)과 거리가 15리다. ……⁸⁴⁾

83) 세종실록 155권, 지리지 함길도 길주목 경원 도호부.

慶源都護府. …… 古孔州, 或稱匡州, 久爲胡人所據. 高麗大將尹瑗逐胡人, 置公險鎭防禦使. 本朝太祖戊寅, 以有德陵·安陵, 陞爲慶源都護府. …… 太宗九年己丑, 設木柵于所多毛營基, 移府. 十年庚寅, 因野人之亂, 合爲鏡城郡. 十七年丁酉, 割鏡城豆龍耳峴以北, 復爲都護府, 於富家站建木柵爲治. …… 四境, 東距海二十里, 西距鏡城豆龍耳峴四十里, 南距連海堀浦十二里, 北距公險鎭七百里, 東北距先春峴七百餘里, 西北距吾音會山城基一百五十里. ……

84) 세종실록 155권, 지리지 함길도 경원 도호부.

慶源都護府. …… 本高麗地, 中爲胡人所據. 太祖七年, 初置府于孔州, 始號慶源. 太宗九年, 移府于所多老營基, 設木柵以治. 十年, 斡朵里酋長童猛哥帖木兒誘引深處野人入寇, 殺府使韓興寶等, 於是徙民

『지리지』의 편자(編者)는 경원부 항목 끝부분에 중복 기재의 이유를 밝혔는데, 신설(新設) 행정구역 중 '가장 큰 진이 되어(最爲巨鎭)', '상세히 언급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라는 식의 이야기다.⁸⁵⁾

기재된 내용을 정리하면, 이선 국초부터 존재했던 본래의 경원부는 태종 10년에 일어난 '야인의 난(野人之亂)'으로 인하여, '마침내 그 땅을 비웠다(遂虛其地)'라고 언급했을 정도로 완전히 소멸되었다.⁸⁶⁾ 이후 태종 17년에 기존 행정구역을 나누어서 경원부의 호청을 복구하였다(復舊號). 결과적으로 경원부가 이치된 것과 같은 상황이다. 그리고 세종 16년에 이르러 '경계의 복고(復古境)를 논의(議)한 끝에 마침내 '옛터(古基)'에 경원부를 재건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중복된 두 항목에서 설명하는 경원부의 '사방 경계(四境)'가, 서로 많이 다르다. 앞에서는 "북쪽으로 공험진(公險鎭)과 거리가 700리, 동북쪽으로 선춘현(先春峴)과 거리가 7백여리, 서북쪽으로 오음회(吾音會) 석성터(石城基)와 거리가 150리"라 하여, 관할 영역이 대단히 넓었음을 표현하였는데, 뒤에서는 그러한 언급이 사라진 것이다.

연혁(沿革)이 태종 17년까지만 기록된 앞쪽 경원부의 '사방 경계'는 아마도 태종 10년에 소멸한 본래의 경원부에 대한 설명일 것이고, 세종 시기의 연혁이 포함된 뒤쪽 경원부의 '사방 경계'는 세종 16년에 재건한 새로운 경원부에 대한 설명일 것으로 추정 가능하다. 그리고 '옛터'는 그 가리키는 대상이 모호한 표현이므로, 태종 10년 이전의 경원부와 세종 16년 이후의 경원부가 같은 곳이 맞는지, 이 기록을 '야인의 난'으로 상실했던 지역을 전부 수복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 남는다.

이처럼 『지리지』에서부터 이중적이었던 경원부 인식은, 『승람』에 가서는 더욱 모호하고 혼미(昏迷)한 모습이 되었다.

경원도호부(慶源都護府). <동쪽은 경흥부(慶興府) 경계까지 96리(里), 남쪽은 바닷가(海岸)까지 1백 65리, 서쪽은 온성부(溫城府) 경계까지 19리, 북쪽은 두만강(豆滿江)까지 16리, 경도(京都)와의 거리(距)는 2천 1백 44리이다.> 건치연혁(建置沿革). 옛 이름(古稱)은 공주(孔州)다. …… 오랫동안 여진(女眞)에게 점거(據)되었다. 고려(高麗)의 윤관(尹瓘)이 여진을 구축하고(逐), 요새(砦)를 설치하여 공험진내방어소(公險鎭內防禦所)로 삼았다. 본조(本朝) 태조(太祖) 7년에 옛터(古址)에 석성(石城)을 축조해서,

戶，合屬鎭城郡，遂虛其地。十七年，割鎭城豆龍耳嶺以北，復置都護府於富家站。復舊號。世宗十五年，猛哥及其子管亮爲兀狄哈所殺。十六年，讓復古境，以所多老地廣且饒，賧路要害，乃於古基北偏舍毗家地，設壁城，徙南道民戶以實之，移府，置判官及土官。其後改築石城。二十四年，置鎭節制使。三十一年，割鎭城德川堡北偏白山蒜洞至中大嶺，來屬。……四境，東距豆滿江二十里，西距於豆波覓二十里，南距海一百二十里有奇，北距馬乳山十五里。……

85) 세종실록 155권, 지리지 함길도 경원 도호부.

……慶源府地理，已載于前志。今以沿革附著之，則已成之書，不可以續錄。又嫌其重出而不書，則本府於新設州郡，最爲巨鎭，不可不詳志其建置之由，故兩存之，以備後考。

86) 그 이듬해에 경원진(慶源鎭)이 공식 폐지되었고, 덕릉(德陵)과 안릉(安陵)도 함주(咸州)로 옮겨졌다. 태종실록 21권, 태종 11년 3월 30일 경인. 麗慶源鎭，慶源嘗爲北戎所敗，且德安二陵遷于咸州。……

- 25 -

그 땅에 덕릉(德陵)과 안릉(安陵)이 있으며, 또한 터전을 얻 땅(肇基之地)이라 하여 지금의 명칭으로 고치고 승격하여 부(府)를 만들고, 경성부(鏡城府)의 용성(龍城) 이북을 분할하여 그것에 소속시켰다. 태종(太宗) 9년에 치소(治所)를 소다로(蘇多老)의 옛 영(古營)으로 옮기고 목책(木柵)을 설치해서 거처하였다. 10년에 여진이 [처]들어와 노략질(入寇)하므로 민호(民戶) 옮겨 경성군(鏡城郡)에 합치고(併), 마침내 그 땅을 비웠다(遂虛其地). 17년에 경성(鏡城)의 두룡이현(豆龍耳峴) 이북의 땅을 분할하여 다시 부가첨(富家站)에 읍(邑)을 설치하고 도호부(都護府)로 삼았다. <곧 옛 부거회수역(古富居懷綏驛)의 땅이다.> 세종(世宗) 10년에 또 부의 치소(府治)를 회질가(會叱家)의 땅으로 옮기고, 남계(南界)의 민호를 옮겨(徙)서 그것을 충실히 하고 토관(土官)을 두었다. ……⁸⁷⁾

연혁에서 태종 시기까지의 내용은 대체로 『지리지』와 같다. 그런데 『지리지』에서 세종 16년의 일로 기록되었던, '회질가(會叱家)' 땅에 경원부를 재건한 사실이 세종 10년의 일로 바뀌었고, 이후의 연혁은 생략되었다. 연대(年代)가 달라진 것은 단순한 오기(誤記)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경원부는 국초부터 '터전을 얻 땅(肇基之地)' 즉 이선 왕실의 발상지이며 '덕릉(德陵)과 안릉(安陵)이 있는 곳'이라 하여 중시한 지역이었다. 세종 시기에 그 '경계의 복고'를 위하여 노력했던 사실들이 『승람』의 경원부 서술에서 거의 생략되었다는 사실은, 직관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현상이다. 이는 『지리지』의 성립 시기로부터 『승람』의 성립 시기에 이르는 기간에 모종의 이유로 강역 인식이 변화하였다고 가정(假定)해야만, 비로소 원할한 이해가 가능해진다.

2. 王氏高麗 疆域의 認識 - 東北界 認識의 昏迷

『승람』은 경원부와 회령도호부(會寧都護府)에 대한 서술에서, 왕씨고려(이하 '왕려'로 약칭) 시기 '동북 9성'의 복단(北端)인 공험진과 선춘령(先春嶺)을 언급하며, 그 위치가 두만강 너머의 '수빈강(愁濱江)' 유역임을 명시하였다. 그런데 그 구체적인 위치는 '조사할 수 없다(未可考)'고 하였고, 과거 윤관이 선춘령에 세웠던 비석에 새겨진 글자를 '다 호인들이 쪼아버렸다(皆爲胡人剝去)'라고도 언급하였다.⁸⁸⁾ 또한 이들 지명

87) 『新增東國輿地勝覽』卷之五十 咸鏡道 慶源都護府.

<東至慶興府界九十六里，南至海岸一百六十五里，西至鎭城府界十九里，北至豆滿江十六里，距京都二千一百四十四里。> 建置沿革，古稱孔州。……久爲女眞所據，高麗尹瑗遂女眞，設砦爲公險鎭內防禦所。本朝太祖七年，因古址築石城，以其地有德陵、安陵，且肇基之地，改今名，陞爲府，割鎭城府龍城以北屬之。太宗九年，移治于蘇多老古營，設木柵以居。十年，因女眞入寇，徙民戶，併于鎭城郡，遂虛其地。十七年，割鎭城豆龍耳峴迤北之地，復置邑於富家站，爲都護府。<即古富居懷綏驛之地。> 世宗十年，又移府治于會叱家之地，徙南界民戶以實之，置土官。……

88) 『新增東國輿地勝覽』卷之五十 咸鏡道 慶源都護府. ……愁濱江，<源出白頭山，北流爲蘇下江，一作遼平江，歷公嶮鎭、先春嶺，至巨陽東流一百二十里，至阿敏入于海。>

『新增東國輿地勝覽』卷之五十 咸鏡道 會寧都護府. ……古跡，公嶮鎭，<自高嶺鎭渡豆滿江，踰古羅耳，歷吾童站、英哥站，至蘇下江，江濱有公嶮鎭古基，南隣具州、探州，北接堅州，按……然未可考。又，……其地面，今亦未可考。> 先春嶺，<在豆滿江北七

이 『승람』의 ‘사방 경계’ 서술들에서 언급되지 않았다는 사실⁸⁹⁾로 미루어보면, 『승람』 성립 시기에 공험진·선춘령과 ‘수빈강’ 유역을 이선의 실효적 강역으로 인식했는지는 의문이다. 다만 전조(前朝) 왕력시기에 진출했던 지역으로 인식했음은 분명하다.

근년의 한 연구에서는 현지답사를 통해, 현 대수분하(大綏芬河) 유역인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공’으로 약칭) 흑룡강성(黑龍江省) 동녕현(東寧縣)의 오배산성(伍排山城)에 공험진을, 근처의 고려령(高麗峯)에 선춘령을 각각 비정하였다⁹⁰⁾. 이는 공험진과 선춘령이 두만강 너머 ‘수빈강’ 유역임을 명시한 『승람』의 기록에 의거한 비정이다. 『승람』은 분명, 전조 왕력의 ‘동북 9성’이 두만강 건너 북쪽 멀리까지 이르렀었고 그 역사적 연고(緣故)가 이선으로 이어졌다고 보는, 『지리지』의 인식을 계승하였다. 이는 왕력의 ‘동북 9성’을 ‘길주 이남’으로 보았던 이선 후기의 인식이나, ‘함흥평야’로 보았던 일제시기의 인식이나, 그 연장선상에서 왕력보다 이선의 동북계(東北界)가 더 전진했다고 보는 ‘통설’의 인식과는 다른 점이다.

그러나 『승람』은 『지리지』와는 달리, 이선 국초의 복단 경원부가 공험진과 선춘령에 이르는 지역을 관찰했음은 명시하지 않았다. 『승람』에서는 경원부 인식이 혼미해졌고, 경원부 인식의 혼미는 동북계 인식 전반의 혼미로 이어졌다. 『승람』은 공험진과 선춘령의 위치를 두만강 너머 ‘수빈강’ 유역으로 명시하면서도, 중의적(重義的)으로 해석될 수 있는 ‘未可考’라는 언급을 덧붙여,⁹¹⁾ 다른 해석의 여지를 남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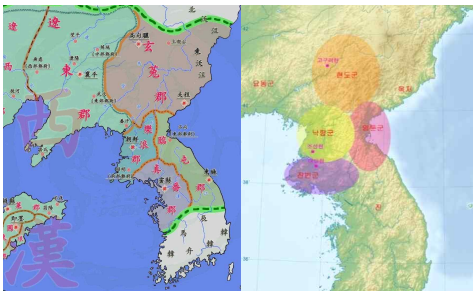
이러한 현상에는, 다른 대상(對象)에 대한 혹자의 평가처럼, “그것을 수복해야 한다는 당위성이 나타나” “매우 위험한 결과를 초래”⁹²⁾하는 사태를 방지하려는 정치적 의지가 작용하였을 것이다. 『승람』의 성립 시기에 이선 왕조의 정책 목표는 부국강병과 강역 수복이 아니라, 성리교 종교국가 체제의 안정화였다. 그래서 『승람』의 동북계 인식은 『지리지』의 인식보다 더 혼미해지는 현상이 나타났고, 이것이 이선 후기와 일제시기를 거쳐 현대로 이어지는 ‘통설’의 형성에 결정적 단초(端初)를 제공하였다.

百里, 尹瑋拓地至此, 城公驗鎮, 遂立碑於嶺上, 刻曰“高麗之境”. 碑之四面有書, 皆爲胡人剝去> ……
89) 『新增東國輿地勝覽』卷之五十 咸鏡道 慶源都護府.
<東至慶興府界九十六里, 南至海岸一百六十五里, 西至穩城府界十九里, 北至豆滿江十六里, ……> ……
『新增東國輿地勝覽』卷之五十 咸鏡道 會寧都護府.
<東至海岸一百四十九里, 南至會寧府界六十八里, 西至豆滿江六里, 北至穩城府界三十里, ……> ……
『新增東國輿地勝覽』卷之五十 咸鏡道 鍾城都護府.
<東至穩城府界二十七里, 北至同府界二十九里, 南至會寧府界八十七里, 西至豆滿江一里, ……> ……
『新增東國輿地勝覽』卷之五十 咸鏡道 穩城都護府.
<東至慶源府界三十四里, 南至海岸二百六十一里, 西至鍾城府界三十七里, 北至豆滿江五里, ……> ……
『新增東國輿地勝覽』卷之五十 咸鏡道 慶興都護府.
<東至造山浦三十五里, 南至海岸四十里, 西至慶源府界三十六里, 北至豆滿江三十五里, ……> ……
『新增東國輿地勝覽』卷之五十 咸鏡道 富寧都護府.
<東至海岸八十三里, 南至穩城府界六十二里, 西至野人地界三十五里, 北至會寧府界三十八里, ……> ……

90) 이인철, 「고려 윤관이 개척한 동북9성의 위치 연구」, 『암록과 고려의 북계』 주류성, 2017, 115쪽.
91) 직관적으로는 ‘(지금)은 그 지역에 통치력이 미치지 못하여’ 현장을 조사(考)할 수 없다.’는 의미로 읽힌다. 하지만 ‘생각을 조금 비틀면, (윤은)지 그른지들) 고찰(考)할 수 없다’ 즉 ‘일단 써놓긴 했지만 말은 말이지 모르겠다’라는 의미로도 해석이 가능하다. 양자간의 의미 차이는 매우 크다.
92) 趙誠乙, 「『世宗實錄』『地理志』와 『高麗史』『地理志』의 歷史地理 認識 - 古朝鮮·三韓·三國의 首都와 疆域을 中心으로 - 』, 『朝鮮時代史學報』, 39(2006), 108쪽.

3. 三國·漢郡縣 疆域의 認識 - 小中華史觀의 發現

중공 정부가 추진했던 역사인식 확산 사업인 이른바 ‘동북공정’은, 지난 2000년대 이래로 한국에서 ‘정치·사회적 이슈’가 되었다. 당시 한국 정부는 이에 ‘대응’한다는 명분으로 국가 재정을 투입해 기관을 신설했고, 이후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각종 정책 사업을 벌였다. 하지만 중공 ‘동북공정’의 역사인식과 현재 한국의 공식적·주류적 역사인식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는 의문이다. 특히 소위 ‘한사군’의 위치와 범위에 대한 인식의 유사성은 <그림3>과 같이 선명하게 드러난다. 중공 ‘동북공정’의 역사지리인식과 한국의 ‘통설’은, 대동소이(大同小異)하다.



<그림3> 중공 백도백과(百度百科)와 한국 위키백과의 ‘한사군(漢四郡)’ 지도

그리고 이러한 ‘한사군’ 인식은 『승람』에도 유사하게 나타나 있다. 『승람』은 평안도 평양부(平壤府) 지역을 주(周)나라 무왕(武王)이 기자(箕子)를 봉(封)한 지역이자, 위만 조선의 수도 왕험성(王險城)이자, 한나라 무제(武帝)가 위만조선을 멸하고 설치한 ‘낙랑군’으로 인식하였다.⁹³⁾ 또한 강원도 강릉대도호부(江陵大都護府) 지역이 한나라의 ‘임둔(臨屯)’이었다고 인식하였고,⁹⁴⁾ 심지어 전라도 남원도호부(南原都護府) 지역을 후한(後漢)의 ‘대방군(帶方郡)’이자 조위(曹魏)의 ‘남대방군(南帶方郡)’으로 인식하였다.⁹⁵⁾ 그리고 이처럼 ‘한사군’과 관련된 옛 지명들을 이선의 강역 내로 끌어들이는 인식과

93) 『新增東國輿地勝覽』卷之五十一 平安道 平壤府.
…… 建置沿革, 本三朝鮮-高句麗之故都, …… 周武王克商, 封箕子于此, 是爲後朝鮮, 傳至四十一代孫, 燕人衛滿奪其地, 都王險城, <險一作倣, 即平壤> 是爲衛滿朝鮮, 其孫右渠不肯奉漢詔, 武帝元封二年遣將討之, 定爲四郡, 以王險爲樂浪郡, ……

94) 『新增東國輿地勝覽』卷之四十四 江原道 江陵大都護府.
…… 建置沿革, 本遼國, <一云鐵國, 一云葉國> 漢武帝元封二年, 遣將討右渠定四郡時, 爲臨屯, ……

95) 『新增東國輿地勝覽』卷之三十九 全羅道 南原都護府.
…… 建置沿革, 本百濟古肅郡, 後漢建安中爲帶方郡, 曹魏時爲南帶方郡, ……

靑을 같이하여, 삼국시대의 지명들도 상당수를 강역 내로 끌어들었던 것으로 보인다. '비류왕 송양의 옛 도읍(沸流王松讓故都)'을 평안도 성천도호부(成川都護府) 지역으로 인식하였고,⁹⁶⁾ 고려의 국내성(國內城)을 평안도 의주목(義州牧) 지역으로 인식한 부분 이 대표적이다.⁹⁷⁾ 또한 평안도 용강현(龍岡縣) 지역을 '옛 황룡국(古黃龍國)'으로 인식 하였는데,⁹⁸⁾ 그 인식의 실체와 의미 해석에 깊은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승람』의 '한사군' 인식은 동북계 인식의 경우에서와는 달리, 『지리지』의 '한사군' 인식을 답습한 것임이 확인된다.⁹⁹⁾ 『지리지』와 『승람』에 일관되게 나타난 '한사군' 인식의 본질은, 주나라 무왕이 공인했다는 이른바 '기자조선(箕子朝鮮)'의 도움이 자국의 평양부 지역이었다고 믿는 일종의 신념체계다. '기자조선'의 도움 위치가 평안도 평양부 지역이라는 인식을 기초적 대전제(大前提)로 삼고, 위만조선이 '기자조선'의 강역을 점수하였고 다시 '한사군'이 위만조선의 강역에 설치되었으므로 모두 그대로 같은 지역에서 계승되었다고 보는 인식구조인 것이다.

대체로 이와 靑을 같이한다고 해석될 수 있는 역사지리인식은, 왕려시기의 『삼국사기(三國史記)』나 『삼국유사(三國遺事)』에서는 단편적이고 모호한 형태로 나타났을 뿐 이다.¹⁰⁰⁾ 즉 그것은 이선 초기의 『지리지』에서 비로소 일관적·확정적인 견해로 체계화되었고, 『승람』은 그것을 계승하여 고착화하였다. 그리고 이선 후기와 일제시기를 거쳐 현대의 '통설'에 이르기까지, 역시 대동소이하게 계승되어 주류 역사지리인식으

96) 『新增東國輿地勝覽』卷之五十四 平安道 成川都護府.

…… 建置沿革. 本沸流王松讓故都. 高句麗始祖東明王自北扶餘來, 都卒本川. 松讓以其國降. 遂置多勿都, 封松讓爲多勿侯. ……

97) 『新增東國輿地勝覽』卷之五十三 平安道 義州牧.

…… 古跡. 國內城. <一云不而城. 高麗瑠璃王二十一年, …… 王親幸觀地勢. 二十二年冬, 王遷都國內. 築蔚那羅城. 歷四百二十五年, 長壽王移都平壤. 今按, 鄭麟趾高麗地理志, '麟州有長城基. 德宗朝, 柳節所築. 起自州之鴨綠江入海處', 又兵志, '起自西海濱古國內城界鴨綠江入海處', 則國內城當在古麟州境內. 金富軾高句麗地志. 則云, '國內城未知的在何處. 當在鴨綠以北漢玄菟郡之界. 遼東京遼陽之東.' 未詳孰是. 姑從鄭說附此.>

98) 『新增東國輿地勝覽』卷之五十二 平安道 龍岡縣.

…… 建置沿革. 古黃龍國, 爲高句麗所并. 高麗稱黃龍城. <一云軍嶽.> 後改今名, 爲縣令. 本朝因之. ……

99) 세종실록 154권, 지리지 평안도 평양부.

平壤府. …… 本三朝鮮舊都. …… 周武王克商, 封箕子于此地. 是爲後朝鮮. 建四十一代孫祚. 時有燕人衛滿亡命, 聚黨千人, 來奪平地. 都于王險城. <即平壤府.> 是爲衛滿朝鮮. 其孫右渠不肯奉詔. 漢武帝元封二年, 遣將討之. 定爲眞番·徼屯·樂浪·玄菟四郡, 隸于幽州.

세종실록 153권, 지리지 강원도 강릉 대도호부.

江陵大都護府. …… 本穢之古國.<或稱穢國. 或稱藥國.> 漢武帝元封二年, 遣將討右渠定四郡時, 爲臨屯. ……

세종실록 151권, 지리지 전라도 남원 도호부.

南原都護府. …… 本百濟古龍郡. 後漢建安中, 爲帶方郡. 曹魏時, 爲南帶方郡. ……

100) 『삼국사기(三國史記)』에서는 한나라 낙랑군과 고려 '평양'과 왕려 서경(西京)이 같은 곳이라는 인식이 나타난다. 소위 '남대방군'과 전라도 남원 지역을 연결하는 인식의 시초는 『삼국유사(三國遺事)』의 기록이다. 이러한 인식의 실체 규명과 의미의 해석에는, 깊은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三國史記』卷第三十七 龍志第六 地理四 高句麗 百濟.

…… 平壤城似今西京. 而沮水則大同江是也. ……

『三國遺事』卷第一 紀異第一 南帶方.

南帶方. 曹魏時始置南帶方郡<今南原府.>故云. 帶方之南海水千里曰瀚海. <後漢建安中以馬韓南荒地爲帶方郡, 倭韓遼屬是也.>

로 자리매김하였다.

이러한 역사지리인식의 형성 배경에는, 이선의 건국이념이 있다. 성리교 국가 이선의 건국이념에서는 '기자조선'에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이선 건국이념을 정립(定立)한 정도전(鄭道傳)은 그의 저술 『조선경국전(朝鮮經國典)』에서, '국호(國號)'의 정통성에 대한 성리교적 명분론을 주장하였다. 정도전은 단군조선, 위만조선, 고구려의 고구려, 온조의 백제와 견훤의 백제, 박씨·석씨·김씨의 신라, 궁예의 후고려(後高麗), 양건의 고려 등이 모두 '중국의 명령을 받지 않아(不受中國之命)' '족히 취할 것이 없다(何足取哉)'고 평가하며, 오직 '기자(箕子)'만이 주나라 무왕의 명령(周武之命)을 받아 조선후(朝鮮侯)에 봉해졌다고 하였다.¹⁰¹⁾ '중국의 명령'을 통하여 동이(東夷)의 땅에 건설된 '도 하나의 작은 중화(小中華)'인 '기자조선'이, 이선 왕조 정통성의 근원이라는 말이다.

다른 사람도 아닌, 건국이념의 정립자(定立者)가 이같이 언급하였다는 사실의 의미는 무겁다. 그 '중국의 명령'을 받아 성리교적 정통성이 충만한 '기자조선'의 도움이 이선의 강역 내에 있었느냐의 여부는, 그 국호와 정통성의 계승을 선언한 이선의 지배층에게는 단순한 역사지리인식에만 그치는 문제가 아니었을 것이다. 적어도 정도전의 『조선경국전』에서 언급된 이후로는, '기자조선'에 성리교적 정통성을 부여하고 그 구도(舊都)를 자국의 강역 내에 설정하려는 구체적 의지가 발현(發現)되었고, 그러한 의지가 이선 지배층의 주류 역사지리인식을 지배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선 후기의 주류 역사지리인식을 대표하는 저작 중 하나인 『아방강역고』에서도, '조선의 이름은 평양에서 일어났고, 평양에서 기자가 오랑개(夷)를 문명화시켰다(明)'는 대전제를 마치 일종의 신앙처럼 재확인하였다.¹⁰²⁾ 정도전에서 정약용까지, 자국을 '또 하나의 작은 중화'로 규정하는 소중화의 역사관이 면면히 이어졌던 것이다. 이선 초기 변계량(卞季良)·양성지 등이 드러냈던 '자주적' 역사관은, 이선 후기 이익(李穡)·박지원(朴趾源) 등의 비판적 역사지리인식과 마찬가지로, 비주류 소수의견에 불과했다.¹⁰³⁾ 그것을 침소봉대(針小棒大)하여 마치 그들이 당시 이선의 공식적·주류적 역사관을 대표했던 것처럼

101) 『三峯集』卷之十三 朝鮮經國典 上 國號.

海東之國, 不一其號. 爲朝鮮者三. 曰檀君曰箕子曰衛滿. 若朴氏舊氏金氏相繼稱新羅. 溫祚稱百濟於前. 甄萱稱百濟於後. 又高朱蒙稱高句麗. 弓裔稱後高麗. 王氏代弓裔, 仍襲高麗之號. 皆竊據一隅. 不受中國之命. 自立名號. 互相侵奪. 雖有所稱. 何足取哉. 惟箕子受周武之命, 封朝鮮侯. ……

102) 『興發堂全書』第六集地理集第一卷 疆域考 其一 朝鮮考.

朝鮮之名, 起於平壤. 當本箕子之所都也. …… 備案. 今人多疑箕子朝鮮或在遼東. 然蘇秦傳·貨殖傳·朝鮮·遼東·眞番之等, 皆別言之. 不可混也. 知朝鮮之名, 必起於平壤者. 地理志樂浪郡屬縣二十五. 朝鮮居首. 當時, 衛滿之都, 實在平壤. 其後, 樂浪之治, 亦在平壤. 而其首縣爲朝鮮. 則朝鮮者, 平壤之舊名也. 愚曰, '箕子之明夷', 謂箕子爲君, 而外夷文明也. 若但遼東而止. 豈遼夷哉. ……

103) '조선의 옛 강역은 싸우지 않고 스스로 줄어들었다(朝鮮舊疆, 不戰自蹙)'고 한탄한, 유명한 '열하일기(熱河日記)'의 한 대목에서도, 당시 이선에서 박지원과 같은 비판적 역사지리인식은 소수의견에 불과했음이 드러나 있다.

『燕巖集』卷之十一 別集 熱河日記 渡江錄.

…… 然吾東之士, 只知今平壤言箕子都平壤則信, 言平壤有井田則信, 言平壤有箕子墓則信. 若復言瀋城爲平壤, 則大驚. 若曰, 遼東復有平壤, 則此爲佞說. 獨不知遼東本朝鮮故地. 唐懷嶺鉅東彝諸國, 盡版屬衛滿朝鮮. 又不知烏刺率古塔後春等本地本高句麗疆. 嗟乎, 後世不詳地界, 則妄把漢四郡地. 盡局之於鴨綠江內. 牽合事實. 區區分排. 乃復竟沮水於其中, 或指鴨綠江爲沮水, 或指清川江爲沮水, 或指大同江爲沮水. 是朝鮮舊疆. 不戰自蹙矣. ……

럼 이야기하는 것은, 현실과 '바깥'을 혼동하는 작위적이고 비(非)역사적인 견해다.

그런한 대세 하에서 형성된 이선의 주류 역사지리인식은 『지리지』와 『승람』에서 공식화된 이래로, 이선 후기까지 거의 그대로 고착화되었다. 이후 일제시기 주류 역사가들이 이선의 주류 역사지리인식을 계승하였고, 현대 한국의 주류 역사가들은 일제시기 주류 역사가들의 역사지리인식을 계승하였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 한국의 역사지리인식을 지배하는 '통설'의 실체다.

그러므로 '통설'이란, 실질적으로 이선시기에 이미 형성되어 있었던 전통적 역사지리인식이다. 따라서 이선시기 역사지리인식 ≒ 일제시기 조선총독부 역사지리인식 ≒ 현대 한국의 '통설'이라는 약등식(約等式)으로 표현이 가능할 정도의 연속성·계승성이 성립한다. 그렇다면 중간의 '조선총독부 역사지리인식'을 빼더라도, 이선시기 역사지리인식이 그대로 현대 한국의 '통설'로 이어지는 연속성·계승성이 성립한다. 그러므로 '통설'의 역사관에 적합한 명명(命名)은 '식민사관'이 아닌, 소중화사관(小中華史觀)이다.

IV. 現代 韓國 歷史地理認識의 起源과 性格

만약 '통설'을 대체할 대안적 역사지리인식을 확립하고자 한다면, 먼저 '통설'의 기원과 성격을 이해해야 한다. 그러므로 '통설'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의 문제는, 오늘날 대안적 역사관을 모색하는 연구자들에게는 간과할 수 없는 과제다. 그리고 그것은 구체적으로 검증된 사실을 통해야만, 반석처럼 굳건한 논리적 토대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혹자들은 '통설'에 대하여, 안으로는 '민족적 긍지'를 품었고 밖으로는 국제관계상 이적행위로 연결된다 하여, 습관적·편의적으로 '식민사관'이라 칭해왔다. 그러나 식민사관이라는 엄중한 범주적 개념은 엄밀하게 정의할 필요가 있고, 근년에는 그것을 이론적으로 체계화하는 성과도 있었다. 그러므로 이제는 인식의 형해화를 유발하는 습관적·편의적 용어 남용을 지양하고, 이론적 성과를 바탕으로 현상의 실체를 구체적으로 인식하여 보다 적확(的確)한 용어로 표현할 필요가 있다. 부분적·단편적(斷片的) 사실관계를 내세우고, 뿌리 깊은 대중적 반일(反日) 감정에 마치 관성(慣性)처럼 편승하여, 모호한 용어를 전가의 보도(寶刀)처럼 사용하는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방식으로, 식민사관을 구축(構築)하고 대안적 역사관을 구축(構築)할 수 없을 것이다.

이선 왕조는 세종 시기 이래로 성리교를 유일 통치이념으로 삼았고, 세조-예종-성종 시기에는 공포정치와 기록문화유산 인멸을 통하여 성리교 종교국가 체제를 완성하였다. 이후로 이선의 지배층은 부국강병과 강역 수복 등 국가체제에 잠재적 불안 가져올 수 있는 정책을 포기하고, 성리교 종교국가 체제의 안정화에 집중하였다. 그러면서 국초에 중시하였던 왕조의 발상지 경원부를 비롯한 동북계에 대한 강역 인식은 혼미해져갔다. 『승람』 이후 혼미해진 동북계 인식은 이선 후기를 거쳐 일제시기로 이어졌고, 현대 '통설'의 형성에 결정적 단초를 제공하였다.

이선의 건국이념은 자국의 정통성을 '기자조선' 이래의 '소중화'라는 관념적 환상과 결부(結付)시켰다. 성리교의 환상적 세계관을 내면화한 그들에게, '중국'은 단지 이웃의 타자(他者)가 아니라 일종의 자의탁(自我依託) 대상이었다. '중국의 명령'을 받아 '조선에 봉해진' '기자조선'의 옛 도읍은 이선 왕조에게 있어 국가 정통성의 상징과도 같았으므로, 그것의 위치는 반드시 이선의 강역 내에 설정되어야만 했을 것이다. 그래서 평안도 평양부 지역에 설정된 '기자조선'의 옛 도읍은, 이선의 주류 역사지리인식에서 마치 일종의 신앙처럼, 역사적 지명 비정의 절대적 기준점이 되었다. 그러한 '기자조선' 중심의 역사지리인식 즉 소중화사관은 현대의 '통설'까지 대동소이하게 이어졌다. 다시 말해 '통설'의 기원은, 이선시기의 소중화적 역사지리인식이다.

현행 주류 한국사의 역사인식에 와서는 '기자조선'의 존재가 부정되었는데, '한사군'이 그 자리를 대신하면서 소중화사관의 관습적 역사인식은 더욱 곤세게 이어졌다. 이선 성리교도들이 '중국 은(殷)나라 말기의 성현(聖賢) 기자가 동방에 와서 야만의 땅을 교화하여 소중화를 열었다'고 믿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현행 주류 한국사 논자들은 '중국 한나라의 군현을 통해 야만의 땅 한반도에 선진 문물이 도입되면서 비로소 고대국가가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역사관을 고수(固守)하고 있다. '기자조선'의 부정으로 인해 달라진 것은, '문명화'의 역사적 시원(始原) 인식이 기원전 12세기경에서 기원전 2세기경으로, 천년 가량을 끌어내려졌다는 점과, '기자조선'을 통해 그 이전 시대의 단군조선과 이어졌던 역사인식 체계가 무너지면서 시간적 연결고리를 상실한 단군조선이 완전한 허구로 취급되기에 이르렀다는 점이다. 소중화사관은 역사지리인식 문제를 넘어, 한국의 역사인식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다. 그리고 오늘날 그것은 국제관계상 이적행위로 연결되기에 이르렀다.

근대 서구와 일본의 영향으로 형성된 식민사관과 이선시기 성리교 세계관에서 만들어진 소중화사관 사이에는, 한편으로는 공교로운 유사성이 발견된다. 이선시기의 소중화사관이 '중국'을 '세계의 중심'이자 '보편적 법칙'의 기준으로 보았듯이, 근대의 식민사관과 현행 주류 한국사의 역사관은 '세계사적 보편성'을 전제하고 소위 '역사 발전의 법칙'이라는 관념적 '표준'의 선입관으로 역사를 재단(裁斷)해왔다. 이들은 모두 선입관과 연역적 사고방식의 프레임 안에 역사를 가두는, 보편주의·법칙주의 역사관이다. 아마도 이러한 구조적 유사성이 일종의 혼동을 일으켜, 소중화사관에서 기원한 '통설'이 '식민사관'으로 불리게 된 원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이다.

이선시기의 소중화사관과 일제시기 이후의 식민사관에 보편주의·법칙주의라는 공통분모가 존재함을 인식하면, 오늘날 식민사관의 구조와 계보에 대해서도 인식 확장의 여지가 생긴다. 일제 패망 후 거의 1세기가 지나가는 시점에 아직도 식민사관이 화두가 되고 있는 현실은, 오늘날 한국의 식민사관이란 과거의 일제라는 타자가 일방적으로 주입한 역사관이 아님을 의미한다. 그것은 어떤 이유에서인가 많은 한국인들 스스로가 지속적으로 확대 재생산하고 있는 역사관이다. 어쩌면 오늘날 한국에서 '식민사관'의 본질은, 5백여년의 긴 시간 속에 고착화하여 마치 한민족의 전통적 역사관처럼 굳어져버린 소중화사관이 '근대'라는 새 옷으로 갈아입은 것에 불과한지도 모른다.

<참고문헌>

(원전)

『三國史記』
『三國遺事』
『조선왕조실록』
『新增東國輿地勝覽』
『三峯集』 『谿谷集』 『燕巖集』 『與猶堂全書』

(단행본)

앨런 소캅 저(著) 이희재 역(譯), 『지적 사기』, 한국경제신문사, 2014.
윤한택 복기대 외, 『암록과 고려의 복개』, 주류성, 2017.
이덕일, 『이덕일의 한국통사』, 다산북스, 2019.
임종권, 『한국 실증주의 사학과 식민사관』, 한가람역사문화연구소, 2020.

(논문)

박인호, 「조선전기 지리서에 나타난 역사지리인식과 특성」, 『조선사연구』 第 10輯, 2001.
박인호, 「고려시기 사서에 나타난 역사지리인식의 추이와 특성」, 『세명논총』 제9집, 2001.
복기대, 「경원부의 위치에 관한 소론」, 『인문과학연구』 68, 2021.
徐仁源, 「『東國輿地勝覽』에 반영된 自主意識 - 納膺 梁誠之의 思想과 關連하여-」, 『역사민속학』 제29호, 2009.
임종권, 「한국 실증주의 사학의 계보 - 식민사관과 상관성-」, 『역사와융합』 제 2집, 2018.
趙誠乙, 「朝鮮初期 古朝鮮·三韓·三國의 首都와 疆域 認識 - 新增東國輿地勝覽을 中心으로-」, 『科技考古研究』 11號, 2005.
趙誠乙, 「『世宗實錄』 「地理志」와 『高麗史』 「地理志」의 歷史地理 認識 - 古朝鮮·三韓·三國의 首都와 疆域을 中心으로-」, 『朝鮮時代史學報』 39, 2006.
최경훈, 「조선시대 『주자대전』 선집서의 간행과 구성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 54권 제 2호, 2020.
최원호,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세종 6진의 위치 지정 비판」, 『역사와 융합』 제14집, 2023.

(사이트)

두산백과(doopedia) - <https://www.doopedia.co.kr/> 2024.5.20
아주경제 - <https://www.ajunews.com/> 2024.5.20
위키백과 - <https://ko.wikipedia.org/wiki/> 2024.5.20
이북5도위원회 - <https://www.ibuk5do.go.kr/> 2024.5.20
한국고전종합DB - <https://db.itkc.or.kr/> 2024.5.20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https://encykorea.aks.ac.kr/> 2024.5.20.
Baidu - <https://www.baidu.com/> 2024.5.20
Google Earth - <https://earth.google.com/> 2024.5.20

- 33 -

【Abstract】

Origin of the Korean territorial conscience showed by official geography book
in the Joseon dynasty
-Focus on Shinjeungdonggukyeojiseungram-

Kim, Hwan
(Munhwalang R&D Co., Ltd)

This study analyzed the official geography book of the Joseon dynasty, focusing on Shinjeungdonggukyeojiseungram. It is to investigate the origin of Korean territorial conscience. Shinjeungdonggukyeojiseungram is an official geography book of the Joseon dynasty. It was compiled in the early 16th century.

The Joseon dynasty introduced Neo-Confucianism in earnest from the reign of King Sejong in the 15th century. King Sejo, King Yejong, and King Seongjong established a Neo-Confucian order. It was done through brutal punishment and destruction of cultural heritage. Neo-Confucianism became the actual state religion of the Joseon dynasty from the reign of King Seongjong in the late 15th century. So, Shinjeungdonggukyeojiseungram was influenced by Neo-Confucianism.

Neo-Confucianism included Sinocentrism, and the ruling class of the Joseon dynasty was possessed by Sinocentrism. They entrusted their legitimacy to the Chinese dynasties. They have forgotten the perception of lost territories that are not likely to be recaptured. As a result, Korean territorial conscience was trapped inside the Korean peninsula.

Some Koreans believe that the loss of their territorial conscience is due to Japanese colonialism in the 20th century. Indeed, there are some similarities between Sinocentrism and Japanese colonialism.

Keywords :

Korean Territorial Conscience, Shinjeungdonggukyeojiseungram, Sinocentrism, Neo-Confucianism, Colonialism.